

세플러⁺ 윈

Schaeffler Korea Plus One 2016 Winter Vol.47

Special Theme

고객과의 소통



In Schaeffler

page 20 다시 찾는 수확여행
눈 속 나라에서 동심을 찾다



For Life

page 30 사랑의 세레나데
사랑은 와인처럼 달콤하게 익어가고



To Communicate

page 50 따뜻한 시선
괘이부리마을 봉사/지적장애인과 함께하는 성탄절 봉사



16



26



34



세플러+원

2016 WINTER Vol.47

세플러인의
꿈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Cover Caption

연구소 콘셉트로 한 2016년 겨울호 <세플러+원>의 표지는 박진영 책임연구원과 박중호 주임연구원이 함께 꾸며주었습니다.

발행일 2017년 1월 16일(통권 제47호)
발행인 이병찬
편집인 박영곤
발행처 서울 중로구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4층
Tel. 02.311.3434
기획·디자인 (주)디자인페이지
Tel. 02.324.9422
출력 광림 출력
인쇄 솔텍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집지윤리강령 및 집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ver Story

- 04 일상 속의 세플러
거리 위에 해결사를 본 적 있나요?

In Schaeffler

- 06 이병찬 대표이사 신년사
- 08 테마 노트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다
- 12 리더에게 묻다
트랜스미션 시스템 BD장 공훈 전무
- 14 제조업의 미래
미래 제조업의 원동력 '인공지능(AI)'
- 16 무모한 도전
정보시스템 VS 재무
- 20 다시 찾는 수학여행
전주공장 공정기술/치공구 서비스
- 24 라면 공작소
만약,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For Life

- 26 아빠 어디가
안산공장 엔진부품 세그먼트 이호영 사원
- 30 사랑의 세레나데
창원공장 품질보증 손강우 사원
- 34 세플러 미식회
전주공장 열처리 세그먼트 최용민 주임
- 38 행복 스케치
<임직원 자녀 그림 콘테스트> 수상 외 작품
- 40 내 인생 최고의 여행지
칠레 토레스 델 파이네(Torres del Paine)
- 42 같이의 가치
'장난감도서관'을 통해 본 공유경제 이야기
- 44 Law school
연말연시에 더욱 강화된 도로교통법

To Communicate

- 46 긴급상황 119
강추위에 급증하는 '겨울철 질환'에 대처하는 자세
- 47 생활 속 사소한 꿀팁
알뜰살뜰 따뜻한 겨울나기
- 48 새로운 시선
11명의 따끈따끈한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 50 따뜻한 시선
팬이부리마을 봉사/지적장애인과 함께하는 성탄절 봉사
- 54 Schaeffler FOCUS
- 57 Schaeffler NEWS
- 61 Schaeffler Hotline

세플러와 함께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거리 위의 해결사를 본 적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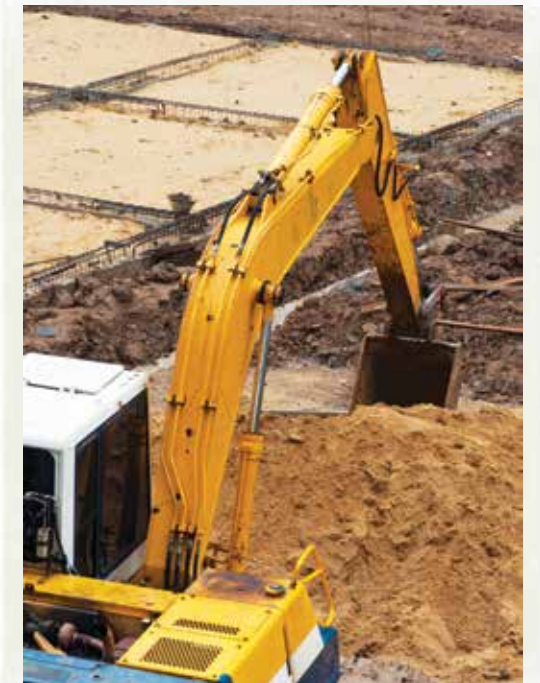
거리를 걷다보면 건설 현장을 이따금씩 만나게 됩니다.
울퉁불퉁한 땅 위에 선 굴삭기는 주인공이 되어
‘왼쪽, 오른쪽’ 부지런히 움직이며
땅을 깊게 파내고, 흙이나 자갈을 퍼 담아
능름하게 트럭으로 나릅니다.

굴삭기가 하는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름철엔 거대한 태풍이나 폭우,
겨울철엔 예상치 못한 폭설과 산사태로 인한 재해 현장에서
강인한 하부체로 안정적인 작업을 이끌고,
월등한 힘으로 최상의 성능을 보여주며
힘든 일을 척척해내는 든직한 해결사로 변신하지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어 망연자실한 사람들을
다시 아늑한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복구를 돕곤 합니다.

지금껏 도로에서 만나면 웅장한 몸집 탓인지
위험한 느낌이 들어 피하기 바빴던 굴삭기.
무덤덤하게 스쳐지나갔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것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안전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술
세플러가 함께합니다.



대형 앵귤러 컨택트 볼 베어링

창원 공장에서 생산하는 대형 앵귤러 컨택트 볼 베어링(Large size Angular Contact Ball Bearing)은 건설현장, 재난 구조 현장에서 인간이 낼 수 없는 힘을 내어 많은 일을 해내는 굴삭기의 주행장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굴삭기의 주행장치는 3~50Ton에 달하는 큰 무게를 견디며 굴삭기의 무한궤도를 회전시켜 주어 굴삭기를 앞뒤로 움직일 힘을 발생시켜줍니다. 높은 방사상의 하중과 굴삭기 상차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탄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세플러코리아에서는 설계 최적화 및 최고의 품질로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의 가족,
동료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주고받으며
한 해의 포부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

세플러코리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년사에 앞서 AP CEO인 Mr. Schick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17년 아시아퍼시픽의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비즈니스 및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세플러코리아의 경영 운영도 이와 큰 궤를 같이해 나갈 것입니다.

고객 중심: 고객중심으로 세플러 조직을 동기화하고 고객의 시간과 일치

품질에 집중: 우리의 목표인 무결점을 위해 기초적인 품질 수준의 향상

기술적인 자립: AP의 R&D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주도해 나가는 능력 배양

인적자원 개발: 잠재적 및 현재의 종업원에게 매력 있는 회사가 되며 우수한 인재의 이탈을 막고 전문야에 걸친 업무 대체 가능 인력의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사업파트너 모델: 사업부 중심의 조직형태로 변화 시키고 지원 기능은 사업부 자원체제로 변화

수익성이 보장되는 판매성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개발하고 수익성을 균형 있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원가절감을 실현

뛰어난 운영 실행: 린(Lean) 생산방식, 프로세스 중심의 운영, 공급자 통합 및 신제품의 안정적인 론칭을 실현

실행중심 상태로 전환: 전략수립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의 전환

Agenda 4 + 1: 20개의 AP initiative를 적극적으로 실행

신뢰, 투명성, 팀워크: 우리는 보다 다른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

2017년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기대감 덕분인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욱 특별할 것 같은 설렘으로 시작합니다. 기업 경영이 정치적인 이슈에 얼마나 민감한지는 모르겠으나 국내 정치 상황은 그야말로 예측을 허락하지 않으며 이러한 정치 환경에 민간 경제 주체들은 알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20년간 풍미했던 세계화의 물결은 자국이익중심의 새로운 파도로 아직 준비 안된 신흥 국가들을 휩쓸고 가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무역규모의 감소추세는 수출시장의 비중이 큰 당사로서는 심각히 미래를 고민해 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년 전 제가 취임사에서 발표했던 세플러코리아의 경제적인 부흥지향, 건강한 기업문화형성, 구성원의 가치제고에 대한 노력은 올해도 변함없이 이어나갈 것입니다. 최근 2~3년간의 당사의 매출 감소는 신규 경쟁사의 등장으로 인한 시장 잠식, 저가 시장의 확대에 집중했던 베어링 시판시장의 정책 실패, 수요 감소로 촉발된 지속적인 생산 원가상승에 따른 국제 시장 내 가격경쟁력 상실 등의 원인들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지금까지 극복해 왔던 수많은 도전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기에 쉽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문제 해결이 늦어져 고착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017년의 첫 번째 제안은 속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빨리빨리’ 문화가 아니라 완벽을 통한 중복의 방지, 숙선수범의 자세, 관습과 통념을 깨는 창의적이고 스마트한 업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필요한 시기를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추월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우리 스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발전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합니다.

저와 경영진들은 2016년 한 해 동안 세플러코리아의 효과적인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계획을 함께 수립하였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전략 목표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확대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은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와 개발 역량이 새로운 비즈니스에 맞는 필요한 포괄적인 역량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2017년의 두 번째 제안은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영역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술 및 사업역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는 최대한의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 차원의 능력확보는 표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인 연마와 향상만이 본질적인 기업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부분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분야에 뛰어드는 태도로 포괄적인 지식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고, 정보를 검색하고 연구하며 함께 고민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에 대한 실패를 걱정하지 않도록 세플러코리아는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계 최고이지만 앞으로도 세계 최고가 될 것입니다. 최고는 환경의 변화와 일하는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기적인 식견과 역량 그리고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투철한 노력을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26년 전 세플러코리아에 입사해 지금까지 간직해 온 소망 중 하나는 우리나라 산업과 기술의 모태가 되었던 일본 시장에서 그 기술의 주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품을 선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상당히 많은 규모의 수주를 마즈다, 혼다(Honda), 니산(Nissan), 안마(Yanmar), 구보타(Kubota) 등 일본의 주요 업체들로부터 확보했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매출 증가는 우리가 세계 기계산업의 절대 강자인 일본 업체와 일본 내에서 경쟁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한 성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2~3번씩 전해오는 일본 고객의 품질불만 소식은 그동안의 우리의 노력과 성취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큰 위험입니다. 일본 시장 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빈틈없기로 유명한 일본 고객들에게서 들려오는 기초적이고 사소한 품질 불만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노력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2017년의 세 번째 제안은 품질마인드의 내재화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품질 문제는 기술적인 결함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거나 잘 못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품질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관점부터, 모든 행동양식까지 전 부분의 혁신적인 개선을 해야 합니다. 고객중심의 생각으로부터 대응까지 일관된 정신자세와 해야 하는 과업을 반드시 하고야 마는 우리 몸에 일체화된 품질 마인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플러코리아인에게 새롭게 배양될 품질문화는 우리를 절대 강자의 반열에 올려놓는 마지막 관문이 될 것입니다.

2017년 한 해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한 해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동료들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한 해를 기원하며 새해 인사를 주고받으며 한 해의 포부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동료들은 가까이 여러분의 후원자가 되어줄 것이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습관이 되어있지 않아 어색할 수는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소통하십시오. 보다 가까이서 공감하십시오. 이것이 올해 제가 드리는 마지막 제안입니다.

세플러코리아 임직원 모두 2017년 한 해 더욱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1일

세플러코리아 대표이사 이병찬

고객과의 소통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다

약진과 고객 의견 반영, 샤오미(Xiaomi)

샤오미(Xiaomi)의 성공 핵심 포인트는 사용자의 의견을 자주 듣고 이를 제품에 반영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샤오미는 '샤오미 뒷마당(小米后院)'이라는 블로그와 '미유아이(MIUI, 샤오미가 개발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포럼 등을 통해 사용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꼼꼼히 듣고, 좋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의견을 제시한 사용자에게는 본인의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알려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인다. 이렇게 인정받은 사용자는 자신이 제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샤오미 제품을 사용하게 되고, 샤오미에 대한 관심도와 신뢰도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샤오미의 태도는 초기 수용자(Early Adopter) 중심의 열성적인 고객 기반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실제로 샤오미 고객들은 애플이나 구글 사용자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엔터테인먼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다고 한다.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샤오미의 서비스 중심 사업구조가 젊고 혁신적인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주의 깊은 청취와 고객 감동, 로프트(LOFT)

미국 직장 여성들이 선호하는 의류 브랜드 로프트(LOFT). 페이스북에 전문 모델이 착용한 제품 사진을 올리며 홍보했다. 하지만 몇몇 고객들은 '이 옷은 누구에게나 어울리

는 옷이 아니라 전문 모델에게만 어울리는 옷'이라며 불평했고, 한 고객은 '일반인의 착용 컷을 보여 달라'고 정중히 요청하기도 했다. 수많은 불만 사항 가운데 하나라고 간주할 수 있었지만, 로프트는 고객의 요구에 즉시 반응했다.

다음날 로프트는 바로 페이스북에 이기적인 몸매를 가진 모델과는 거리가 먼 직원들의 실제 착용사진을 올렸다. 몸집이 작은 고객부터 큰 고객까지 누구든지 수궁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즈의 착용 모습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것이다. 여기에 직원들은 왜 이 옷이 좋은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로프트는 고객 충성과 제품 혁신이란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객은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떨 때 고마워할까, 어떤 것을 편리하게

생각할까, 어떤 것을 불편해할까...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여기에 성공의 모든 비밀이 들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혼자서 고객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당사자인 고객

스스로 만족과 불만족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해보자.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처럼 단순한

원칙이 모든 사업 성공의 비밀이다.

고객과의 진지한 소통에서 찾은 것이다. 이처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헤아려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고객 만족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작은 배려가 큰 감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고객 소통, 캐논(Canon)

일본 카메라 전문 기업인 캐논(Canon)은 올해로 중국 진출 20년을 맞았다. 스마트폰의 거센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부터 고객과의 소통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캐논. '고객이 제품의 개선과 혁신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는 기본적인 믿음에 바탕을 둔 시도였다.

캐논은 중국사이트 시나웨이보(新浪博客)에서 마케팅을 실시했다. 캐논이 주목한 대상은 유행의 변화에 민감한 20~30대 젊은이들이었다. 일반적인 정보나 광고성 정보의 게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이들을 위해 고객의 고민이나 조언에 신속하게 답신을 띄우는 쌍방향 소통에 주력했다. 정기적으로 캐논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콘테스트'를 실시해 우수 작품에 대한 상상은 물론이고, 새 촬영 기법을 자세히 알려주거나 참여자들이 겪은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해설 등을 진솔하게 업데이트했다. 때로는 즉석카메라 작품 콘테스트를 열기도 했는데 하루 만에 3만 명의 작품이 업로드되는 대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캐논의 중국지역 전략본부장 후루야마(古山佳子)는 “나름의 절박한 위기감을 갖고 세심하게 소비자들의 동태를 파악하려 한다. 미래의 핵심 고객을 키우는 데 소통이 최적격”이라고 말했다.



캐논 사진 공모전



삼성 갤럭시 노트7

아쉬운 고객소통, 삼성 갤럭시 노트 7

삼성이 심혈을 기울여서 내놓았던 갤럭시 노트 7 모델에 대해 아쉬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제품은 성능면에서 기존 제품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났으나 배터리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배터리 문제로 인해 교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이 거둬들인 삼성전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교환을 망설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교환에 따른 불편함이고, 다른 하나는 제품의 우수성이다. 사실 배터리는 첨단 기술이 아니라 범용 기술에 해당한다. 이런 기술 때문에 삼성전자가 막대한 직접 손실은 물론이고 브랜드 가치에 손상을 입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갤럭시의 배터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한 고객은 자신의 SNS에 귀담아들을 만한 이야기를 남겼다. “구형 갤럭시 모델의 배터리

발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두세 번 정도 애프터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서 배터리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삼성 애프터서비스센터에 보고된 구형 갤럭시의 배터리 문제는 수만에서 수십만 건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일찍부터 고객의 불편이나 불만에 대해 더 주의 깊은 관심을 가졌다면 이처럼 엄청난 손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고객의 지적처럼 오랫동안 갤럭시를 사용해 온 사람들은 발열 때문에 배터리를 잠시 동안 빼었다 다시 끼운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고객의 불만이나 불평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펼쳤더라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안타까운 사례다. 요컨대 성공적인 고객소통을 원하는 기업이라면 몇 가지의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객이 답을 갖고 있다는 임직원들의 믿음, 고객으로부터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하려는 겸손함, 원활한 고객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화된 방법의 마련을 들 수 있다.

이젠 ‘고객은 왕’이라는 말은 틀렸다. 고객은 왕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야 한다. ‘고객은 왕’이라는 말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왕래도 없고 소통도 거의 없다. 고객관리는 왕과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수시로 접촉하고 소통하는 친한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 친구와의 관계는 어떤가? 만나면 반갑고, 뽀뽀하면 기쁘고, 통화하면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가슴이 따뜻하다. 수시로 전화하고 수시로 만나면서 서로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공유한다. 고객관리는 이렇게 친구처럼 밀착된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고객이 답을 갖고 있다는 임직원들의 믿음, 고객으로부터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하려는 겸손함, 원활한 고객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화된 방법의 마련을 들 수 있다.”



c u s t o m e r
c o m m u n i c a t i o n

새로운 리더, 그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트랜스미션 시스템
BD장 공훈 전무



#1

신입사원, 공훈

Q. 처음 취업했을 때를 떠올려본다면?

A. 대학을 졸업한 해인 1997년 10월, 첫 직장에 입사했어요. 이공계 출신으로 전문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시작했죠. 입사 후 2주 동안 실무를 익히기보단 실무와 관련된 책만 가득 읽었어요. 한 장 한 장 놓치고 싶지 않아 열심히 읽던 성실한 사원이었습니다.

Q. 아찔한 실수를 했던 적이 있나요?

A. 사원 시절, 인수·인계를 받은 자료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미처 체크하지 못하고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틀린 데이터를 알아채지 못해 샘플로 만든 제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죠. 어이없는 실수에 당황했지만, 적절한 대처와 깨끗한 정신력으로 견뎌냈습니다.

Q. 매너리즘에 빠진 적이 있나요?

A. '매너리즘에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이 바빴어요. 약 20년 경력 정도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마련인데, 저는 신입사원 때부터 지금까지 좋아하는 일에 빠져 살아 매너리즘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2015년 10월, 세플러코리아 트랜스미션 시스템을 새롭게 이끌어갈 리더로 입사한 공훈 전무. 평생을 살아온 독일에서 한국으로 새 동지를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충이 있었는지, 1년간 어떤 새로운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게 세플러코리아는 어떤 의미인지 속속들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Q. 신입사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A. '열심히 하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만큼 옳은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보고 배우며 자신과 팀, 더 나아가 회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회사의 도움이 되는 일원이 되기란 쉽지 않은 일거든요.

#2

요즘, 관심사

Q. 최근,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A. 뭐니뭐니해도 '경제'죠. 전 세계가 저성장장에 빠져있고, 각종 약재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요즘.. 무엇보다 정국이 불안정해서 걱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세플러코리아는 어떤 위치에 왔는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Q.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연말연시라 더욱 정신없는 요즘, 온전히 잠만 폭 자고 싶어요(웃음) 그리고 여유가 생긴다

면 물 좋고, 공기 좋은 한국의 곳곳을 보러 가고 싶네요. 특히 저는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의 유명산을 한 번씩 등반해보고 싶습니다.

#3

새로운 도전, 세플러코리아

Q. 세플러코리아는 어떤 의미인가요?

A. '새로운 도전'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독일에서 익숙지 않은 한국으로 새 동지를 찾기까지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제 도전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죠. 향후 새로운 전무답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며 세플러코리아의 성장을 돕고 싶습니다.

Q. 나는 세플러코리아의 OO다.

A. '교통경찰'이라 불리고 싶어요. 저는 사우들이 업무를 할 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현명하게 정리하고 지도하는 교통경찰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요.

“

‘변해야 산다’는 말처럼
모든 임직원이 함께 변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성공하는
세플러코리아가 되길 바랍니다.

”

Q. 어떤 리더로 기억되고 싶나요?

A. 사우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덕이 많은 리더로 기억되고 싶어요. 사우들이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성공하거나 실패했을 때 느끼는 모든 감정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리더가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4

굿바이 2016, 헬로 2017

Q. 2016년을 돌아보면 어떤 한 해였나요?

A. 2015년 10월 입사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게 달려왔습니다. 세플러코리아가 어떤 기업인지, 이곳에서 내 역할은 무엇인지 많이 보고, 느끼고, 배운 한 해였죠. 새로운 도전을 펼친 한 해라 제겐 남다른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Q. 2017년 정유년(丁酉年) 목표가 있다면?

A. 올해는 트랜스미션 시스템 부서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지난해는 잦은 출장으로 부서원들과 소통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올해는 직접 부서원들을 찾아가 업무적인 고민이든, 개인적인 고민이든 여러 고충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Mini Profile

생년월일
1968년 2월 18일

혈액형
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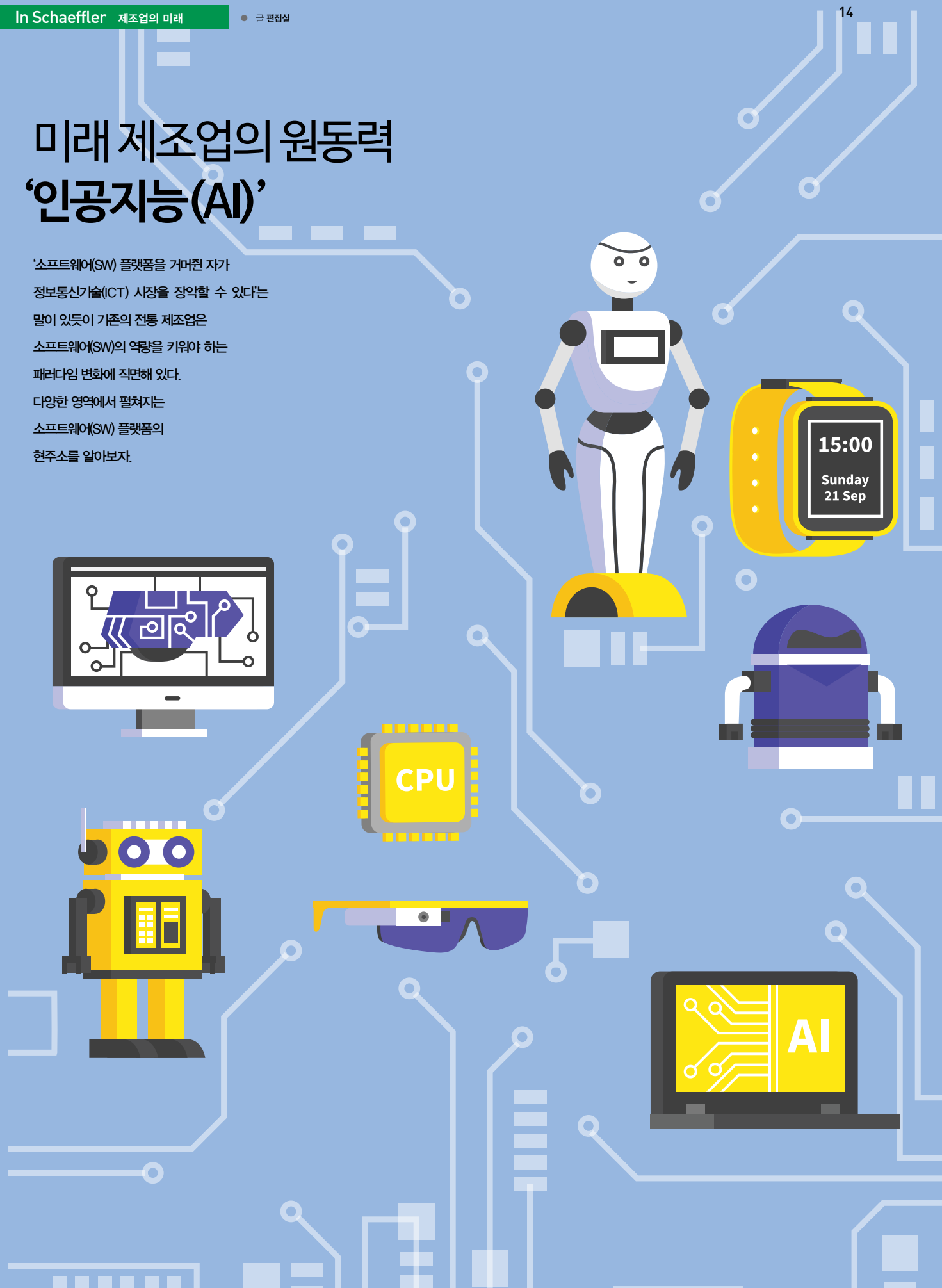
가족관계
아내, 아들

좌우명
‘산을 넘을 수 있다,
아니냐’는 자신의
준비에 달렸다



미래 제조업의 원동력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플랫폼을 거머쥔 자가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기존의 전통 제조업은
소프트웨어(SW)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해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펼쳐지는
소프트웨어(SW) 플랫폼의
현주소를 알아보자.



국내외 인공지능 시장 현황

인공지능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산업구조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한다. 세계의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2015년 1,270억 달러에서 2017년 1,650억 달러로 연평균 14%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2010년 4,500만 달러에서 2015년 3억100만 달러, 투자 건수는 6건에서 54건으로 급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AI 시대, 한국의 현주소는?〉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은 미국 대비 75% 수준에 머물고, 소프트웨어 응용 기술은 74%에 불과하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은 중국과 비슷했고, 소프트웨어 응용 기술은 오히려 중국보다 10%정도 뒤지는 수준이다. 국내의 인공지능 관련 업체 수는 세계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수와 비교할 때 2.5~6.7% 수준으로 미비했다. 인공지능 관련 특허에서도 미국의 5%, 일본의 10% 수준이라고 한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불모지였던 한국에 알파고의 승리로 인공지능 열풍이 불고 있다. 국내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2013년 3.6조 원에서 2017년 6.4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IT기업을 필두로 대기업이 인공지능산업 투자와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인터넷과 게임 등 특정 산업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도 예고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구글(Google)’은 2010년 이후 정보수집과 처리, 기계학습, 로봇틱스 분야의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인수함으로써 인공지능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한다. ‘페이스북(Facebook)’은 전 세계 9억 명의 회원정보를 기반으로 이미지 인식, 음성/문자 인식, 기계학습 관련 스타트업을 인수함으로써 메신저 플랫폼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일본 최대 기업인 ‘도요타(Toyota)’자동차는 2015년 12월 벤처기업인 ‘PFN(프리퍼드 네트워크)’사에 10억 엔(약 100억 원)을 출자해 업무 제휴를 맺었다. PFN사는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 30여 명이 2006년에 설립한 ‘인공지능 특허’ 벤처기업이다. 그 후 도요타는 2016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가전 박람회인 ‘CES 2016’에서 이 PFN사와의 업무제휴 성과를 발표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른바 총돌하지 않는 차를 선보인 것이다.

2016년 2월, 대만의 홍하이(鴻海) 그룹에 매각이 결정된 전통의 가전왕국 ‘샤프(Sharp)’ 역시 인공지능 기술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다. 샤프는 주력분야인 가전부문에서 누적된 적자로 인해 일본 가전 메이커로서는 최초로 외국 기업에 매각되는 수모를 겪었다. 2015년 10월 자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온 인공지능 기술을 가전에 융합한 ‘AoT(인공지능+사물인터넷)’ 제품의 본격출시를 발표했다. 그리고 2016년 4월 14일, AoT 프로젝트의 제1탄으로 인간형 로봇과 스마트 폰을 결합한 ‘로보혼(RoBoHoN)’의 발매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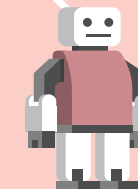


국내 AI 수준, 아직 걸음마 단계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SW) 연구센터 산하에 인공지능 연구를 전담하는 ‘인텔리전스팀’을 신설해 지능형 개인비서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네이버’는 2013년 자체 연구소인 ‘네이버랩스’를 만들고 인공지능 기술 구현의 핵심인 머신러닝(딥러닝) 분야 연구를 진행해왔다. ‘다음 카카오’는 여행지 추천서비스 및 즉답검색서비스에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 및 연구소는 KAIST와 ETRI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R&D를 진행 중이다. 루닛(KAIST), 솔트룩스(엑스브레인 참여), 디오틱(의료관련) 등과 같은 업체가 정부 R&D 과제를 통해 연구 및 제품 개발 진행 중이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아직 기술 수준이 취약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능정보산업 발전 전략’을 내놓고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의 정보가 결합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조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2016년 4월에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6개 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지능정보기술연구소’까지 설립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인재 육성에 힘쓰는 한편 스타트업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술 혁신이 일자리 감소, 실업률 상승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도 절실한 때다”라며 오랜 시간을 두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연구 저변을 확대해 기초연구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못생김 주의보!

‘누가 더 잘 먹나’ 과자 먹기 대결

정보시스템 VS 재무

지난 12월, 서울사무소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끈끈한 사이로 소문난 정보시스템과 재무는 이색적으로 2016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자 먹기 대결을 펼치며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고 2017년 정유년을 힘차게 열겠다는 각오를 다진 활기 넘치던 현장을 찾아가 보자.

윗줄 왼쪽부터)
회계 허지현 대리
회계 김옥중 대리
자금 임승준 사원
정보시스템 교광우 사원
정보시스템 정승균 사원
정보시스템 정찬용 대리

아랫줄 왼쪽부터)
정보시스템 성재규 차장
정보시스템 김소영 대리
회계 신현아 사원
정보시스템 정은혜 사원
정보시스템 유경혜 사원
회계 김지용 사원

서울사무소 최고의 라이벌

2016년 한 해를 훌륭히 마무리한 서로를 격려하고, 부서 간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정보시스템과 재무 사우들은 삼삼오오 대회 의실로 모였다. 알록달록한 플랜카드와 풍선으로 꾸며진 회의실은 아이처럼 신난 표정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또 재무와 붙는 거야?” 평소에도 돈독한 사이로 소문난 두 부서는 매년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되는 미니올림픽에 참가해 우승을 노리는 유명한 라이벌이기도 하다. 몇 년 전까지 ‘재무정보’ 부문 안에 함께 속했던 두 부서는 지금은 분리되었지만, 업무적으로 많은 관련이 있어 현재도 상호 협조하며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때는 한 식구였던 두 부서답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여전히 한 부서처럼 지내고 있다고 한다.

본격적인 과자 먹기 3종 대결에 앞서 사우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임했던 처음 모습과는 달리 신중하게 작전 회의를 하며 대결에 나설 참가자를 뽑았다. 테이블에 준비된 과자를 보던 사우들은 “간단한 미션임에도 불구하고 승부욕이 생긴다”며 서로를 견제했다. 정보시스템 교광우 사원은 특유의 밝은 미소로, 재무 김옥중 대리는 “얼굴이 망가져도 좋으니 이겨 봅시다”라며 결의를 다졌다.

의욕 활활! 와그작, 와그작 다 먹어버릴 테다

첫 번째 대결은 ‘얼굴로 과자 먹기’ 대결. 이마에 올린 과자를 빨리 먹는 사람이 승리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재무 김지용 사원과 정보시스템 정승균 사원이 도전에 나섰다. 얼굴이 망가지는 대결에도 망설임 없이 도전한 두 사원은 얼굴을 찡그리려며 최선을 다해 움직였지만, 과자는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동시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무승부로 끝난 첫 대결을 아쉬워하며 재무 신현아 사원과 정보시스템 성재규 차장이 재대결을 펼쳤다. ‘시작’ 소리와 함께 신현아 사원은 고개를 젖히는 기술을 선보였지만 실패하고 말았고, 이 틈에



#1

훗, 과자쯤이야! 쉽게 성공할 거 같은데?



#2

말으로 조금만 더 움직여줘!



#3

재도전의 승리는 우리의 것! 아자!



#4

쉬워보였는데... 생각처럼 안되네~



성재규 차장은 얼굴을 흔들며 과자를 신중히 내리기 시작했다. 사우들은 “차장님, 최고!”라며 웃음을 터뜨렸고, 이내 성재규 차장도 폭소가 터져 아쉽게 과자를 놓치고 말았다. 결국, 재대결까지 펼친 첫 번째 대결은 무승부로 끝났다.

두 번째 대결은 ‘막대 과자 먹기’ 대결. 두 명이 팀을 이뤄 막대 과자를 나눠 먹고 짧은 토막을 남기는 부서가 승리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무 임승준 사원과 허지현 대리가 한 팀을 이루고, 정보시스템의 김소영 대리과 유경혜 사원이 한 팀을 이뤄 시작했다. 임승준 사원과 허지현 대리는 “남자끼리 민망하다”며 쑥스러워했지만, 부끄러움도 잠시 승부욕이 발동해 과감히 먹어치우는 모습을 보여 지켜보던 사우들을 놀라게 했다. 김소영 대리과 유경혜 사원도 마치 입맞춤을 하는 것처럼 거침없이 먹어치우며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두 사람은 재무보다 약 0.5m 짧은 길이로 짜릿한 승리의 맛을 보았다. 대결에서 패한 허지현 대리는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키스신”이라 말해 큰 웃음을 자아냈다.

한 해를 보내는 달콤한 마무리

마지막 대결은 ‘과자 따먹기’ 대결. 정해진 시간 동안 실에 매달린 과자를 빨리 먹는 부서가 승리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재무가 2승, 정보시스템이 1승인 가운데 사우들은 높은 과자를 먹기 위해 여러 번 점프를 하고, 대롱대롱 흔들리는 과자를 따라다니며 마지막 대결에 몰입했다. 지켜보던 사우들은 “과자 하나 먹기가 너무 힘들다”며 안타까워했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며 응원전을 펼쳤다.

부끄러움도 잠시
승부욕이 발동해
과감히 먹어치우는
모습을 보여 지켜보던
사우들을 놀라게 했다

2라운드 막대 과자 먹기



승려왔던 나의 브로맨스 타임!



재무를 이기려면 천천히, 차분하게



짜잔! 이젠 마술이 아니랍니다~



마지막 남은 과자를 쥘싸게 낚아챈 정보시스템 정찬웅 대리의 활약으로 마지막 대결의 승리는 정보시스템이 가져갔다. 이로써 과자 먹기 3종 대결의 최종 결과는 이대이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대결에 참여한 사우들은 모두 입을 모아 “미션을 이겨야겠다는 생각보다 같이 미션을 참여할 수 있어 좋았고, 과자를 먹는 사우들의 익살스러운 표정이 재밌었다”며 대결을 마친 소감을 전했다.

사이좋게 승리를 나눠 가진 두 부서는 각자의 2017년 목표를 담은 소원 트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사우들은 지나가는 2016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미래도 상상해보며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소원을 적어 나갔다. 두 부서는 “앞으로도 환상적인 협업을 통해 서울사무소의 중심이 되어 세플러코리아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당당한 포부를 밝혔다. 2017년, 오늘처럼 호흡을 맞춰 함께 만들어갈 두 부서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본다.

3라운드 과자 따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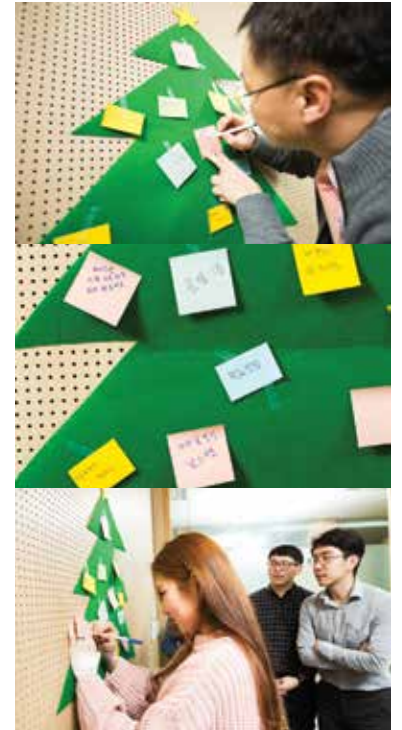
한번에 먹어버릴테다! 앙~



과자가 너무 높이 있는 거 아니냐~?

소원 트리 만들기

한 해를 잘
건뎠다며
서로를
격려하던
사우들,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2017년 목표를
써내려갔다.



+ mini interview

정보시스템
성재규 차장

딱딱한 분위기를 벗어나 웃으며 즐겁게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2017년 소원을 적은 대로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플러코리아 여러분, 2016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7년에도 가정의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쁜 일상을 Let It Go! 눈 속 나라에서 동심을 찾다

전주공장 공정기술/치공구 서비스 전주



윗줄 왼쪽부터)
나기영 사원
김남희 차장
백정훈 대리
오원균 사원
채규홍 선임매니저

아랫줄 왼쪽부터)
이영남 부장
원창연 사원
송주석 사원

천바람이 싸늘하게 두 뺨을 스치면 따스한 방바닥에서 나오기 싫어지는 것이 인지상정. 하지만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고, 추위를 느껴야 방바닥의 소중함도 더 크게 느끼는 법이다. 전주공장 공정기술/치공구 서비스 팀원들은 한파에 웅크리고 다녔던 어깻죽지를 펴고, 겨울을 맘껏 만끽하러 전라북도 무주 덕유산을 찾았다.

+ mini interview

채규홍 선임매니저
전주공장 공정기술/치공구 서비스 전주

공정기술의 팀장으로 발령받은 지 한 달 만의 여행이라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팀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 더욱 돈독한 분위기의 부서를 만들고 싶습니다. 세플러코리아 여러분들,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는 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어색함도 잠시, 웃음꽃이 활짝 피다

생산 시 필요한 공정 설계와 기술을 지원하며, 세플러코리아의 품질 좋은 베어링 개발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는 전주공장의 공정기술/치공구 서비스. 최근 들어 공정 기술 업무의 영역이 새롭게 정립되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에는 공정기술/치공구 서비스를 이끌어갈 새로운 선임매니저로 채규홍 부장이 지정되었고, 이를 기념해 처음으로 함께 덕유산을 찾았다. 주말이라 평소보다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이 몰리면서 도로는 차로 가득 찼지만, 누구 하나 짜증을 내거나 얼굴을 찡그린 사람이 없었다. 채규홍 선임매니저는 “대학 엠티 때 왔던 덕유산을 새로운 팀원들과 다시 찾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연신 미소를 지었고, 팀원들은 “함께한 시간이 짧아 아직은 어색한 팀장님과 떠나는 여행이라 더욱 설렌다”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두 시간가량을 달려 도착한 덕유산 입구는 최고의 눈꽃 여행지로 정평 난 만큼 수많은 관광객으로 붐볐고, 빼곡한 머리 위로 덕유산의 능름한 자태가 한눈에 들어왔다. 자연의 웅장함을 느끼기보단 “이렇게 높은 산을 어떻게 올라가냐”며 걱정하던 원창연 사원이 귀여운 듯 채규홍 선임매니저는 “우리 때는 걸어 올라가는 게 당연했지만, 요즘엔 곤돌라로 올라갈 수 있다”며 원창연 사원을 달랬다. 팀원들은 곤돌라를 타고 15분여를 올라

덕유산 설천봉에 다다랐다. 힘들게 올라야 할 길을 쉽게 오르니 무언가 빼먹은 듯 아쉬웠지만, 창밖의 희뿌연 구름 속에서 눈꽃이 내린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을 보며 모두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다.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려요

“우와!” 곤돌라에서 내린 팀원들은 눈 앞에 펼쳐진 설원을 보고 입을 맞춘 듯 감탄했다. 겨우내 상고대가 피어있는 덕유산은 눈이 오지 않을 때도 때 묻지 않은 순백의 미를 뽐냈다. 앙상한 겨울 나뭇가지에 눈꽃처럼 피어난 상고대는 해발 1천 미터 이상, 영하 6도 이하, 습도 90%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만나볼 수 있지만 다른 곳에 비해 많은 눈이 내리는 덕유산에서는 어디서나 상고대를 찾을 수 있었다. 이영남 부장은 “겹겹이 펼쳐진 하얀 능선이 한눈에 들어와 가슴이 탁 트인다”며 크게 기지개를 켜고, 온통 하얀 풍경에 마음을 뺏긴 사원들도 “온갖 상념이 정화되는 기분”이라며 맑은 공기에 업무 스트레스를 툭툭 날려 보냈다.

설원을 엉거주춤 건다가 엉덩방아를 찢으며 까르르 웃던 팀원들은 이내 아이들의 낭창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대자연이 만든 썰매장에 발걸음을 멈췄다. “나 어릴 적엔 상자나 나무로 썰매를 타곤 했었지...” 신나게 눈발을 구르고, 뜨거운 군고구마를 까먹던 옛 추억을 떠올리며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



창밖의 희뿌연 구름 속 눈꽃과 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던 팀원들





팀원들은 직급과 나이를
잠시 잊어버리고,
동심으로 돌아가
신나는 눈싸움 한판을 벌였다



“
한없이 기쁜 표정으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즐거워하던 팀원들은 동심에 세계를 맘껏 만끽했다.”

라보던 채규홍 선임매니저. 그런 마음을 눈
치챈 팀원들은 “팀장님, 다시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라며 채규홍 선임매니저를 하얀 눈
밭 속으로 이끌었다. 먼저 김남희 차장이 나
서 썰매에 몸을 실었고, “꺅!” 소리를 지르며
눈밭 위를 질주했다. 채규홍 팀장은 쭈뼛거리
는 것도 잠시, 금세 동심으로 돌아가 팀원들
과 함께 썰매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모두 한
없이 기쁜 표정으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즐거워하던 팀원들은 “정말 과거로 돌아온 것
같다”며 화합을 다졌다.

눈밭에서 펼쳐진 눈꽃 튀는 눈싸움

눈밭에선 눈덩이를 굴리며 던지는 재미를 빼

놓을 수 없는 법. 평소 업무 시간 외에도 함
께 운동하며 대결을 즐기는 부서답게 팀원들
은 너나 할 것 없이 눈싸움을 시작했다. 눈이
잘 뭉치도록 장갑도 벗어 던진 채 둥그런 눈
덩이를 만들던 팀원들은 직급과 나이를 잠
시 잊어버리고, 신나는 눈싸움 한판을 벌였
다. 마치 어릴 적,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듯 팀원들은 공정기술/치공
구 서비스의 홍일점인 이영님 부장에게 눈을
흘뿌렸고, 이영님 부장도 맞받아치며 즐거운
동심의 세계를 만끽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놀다 보니 어느새 허
기를 느낀 팀원들은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몸
을 녹였다. “신나게 놀다 먹는 커피라 더할
나위 없이 꿀맛이에요!” 웅기종기 모여 언 밭

을 동동거리고, 코를 훌쩍거리며 호로록 차
를 나눠 마시던 팀원들의 입가엔 순수한 미
소가 가득 번졌다.

현재, 전주공장의 부가가치 증가와 매출 증
대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준비하고 있는 공
정기술/치공구 서비스 팀원들. 채규홍 선임
매니저는 “이번 여행이 공정기술/치공구 서
비스의 끈끈한 단합과 새로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물꼬로 이어졌으면 한다”며 수확여
행을 마친 소감을 전했다. 2017년, 각자 고유
목표 기술(Orbital forming, Broaching, EMAG
Turning, Digital factory)을 선정하여 이에 맞
는 교육을 시행하는 노력을 통해 전문가 집
단으로 성장할 공정기술/치공구 서비스의 밝
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만약,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새롭게 태어날 기회가 주어진다는 상상만으로도 흥미진진해진다.
만약,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세플러코리아 사우들의 재치 넘치는 답변을 들어보자.

김경신 과장 안산공장 업무지원팀

251 likes

#초능력 #미래 #불행 #지켜주기

미래를 보는 '초능력'을 갖고 태어나고 싶다.

대한민국에 있었던 큰 사건 사고들을 지켜보며, 만약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적어도 내가 아는 주변의 모든 불행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며 살아가고 싶다.

이겨레 대리 남부지사 직납영업

327 likes

#금수저 #고민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다.

금수저 인생으로 태어나지 못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차라리 누군가의 '금수저'로 태어나 고민 없이 살고 싶다.

임창범 대리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영업

283 likes

#싫다 #기억

다시 태어나기가 '싫다'.

이번 생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오래오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고 싶다.

김홍진 대리 품질시스템

751 likes

#아내 #환생

지금 나의 '아내'로 태어나고 싶다.

빼앗긴 경제권을 내가 잡고 흔들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 제 아내도 제 남편으로 환생시켜 주세요!

For Life

찬바람이 부는 계절,
 꽂꽂 언 손을 녹이는 차 한 잔의
위로와 행복을 건넵니다.

- 26 • 아빠 어디가
알록달록, 색색의 유리에 아빠와의 추억을 담다
- 30 • 사랑의 세레나데
사랑은 와인처럼 달콤하게 익어가고
- 34 • 세플러 미식회
추억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한 그릇, 칼국수
- 38 • 행복 스케치
세플러 가족들의 가을, 어느 멋진 날의 기억
- 40 • 내 인생 최고의 여행지
바람에 흔들리는 아득한 여정, 칠레 토레스 델 파이네(Torres del Paine)
- 42 • 같이의 가치
장난감에 쉽게 질려버리는 아이를 위한 해결방법은 없을까?
- 44 • Law school
연말연시에 더욱 강화된 도로교통법

유리로 이루어진 세상,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무라노 섬을 방불케 하는
대부도 유리섬.
알록달록 다채로운
색상의 유리 예술이
깃들여져 있는 이곳을
세그먼트 이호영 사원이
아이들과 함께 찾았다.

알록달록, 색색의 유리에 아빠와의 추억을 담다

안산공장 엔진부품 세그먼트
이호영 사원

반짝반짝, 아빠와 떠나는 유리나라 여행

“아빠, 온 세상이 유리로 되어있어요. 이리로 와보세요!” 애교가 많은 둘째 다은이가 이호영 사원의 손을 잡고 대부도 유리섬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아이들에게 새롭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고 싶어 유리섬을 찾았다는 이호영 사원. 이런 아빠의 바람을 알기라도 한 듯,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곳곳에 놓인 거대한 유리 작품 사이사이로 파고들었다.

이호영 사원 가족은 가장 먼저 유리섬 중심에 있는 유리박물관으로 들어섰다. 겨울 해저여행이라도 온 듯, 형형색색의 유리로 만든 산호초와 물고기들이 가득했다. 특히 이곳에는 테마별로 나뉜 공간에 동화 속 캐릭터들이 전시돼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장소다. “유리왕국 같아요. Let it go~” 아빠와의 데이트가 기분 좋은지 막내 다민이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박물관을 누볐다. 이에 첫째 다인이가 한껏 들떠있는 어린 동생들을 살뜰히 챙기며 엄마 역할을 톡톡히 했다. 서로 다른 성향의 세 남매. 사랑스러운 아이들 덕분에 매일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간다는 이호영 사원의 가족은 ‘하하 호호’ 웃음이 끊긴 날이 없단다. “엄마 없이 아이들과의 외출

은 생각해본 적도 없다”는 이호영 사원의 걱정과는 달리, 아이들은 첫째 다인이와 아빠의 말을 잘 따르며 꽤 의젓하게 유리섬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유리 목걸이

“아빠한테 제가 만든 유리 목걸이를 선물할 거예요.” 다인이와 다은이가 유리공예 체험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대부도 유리섬에는 방문객이 직접 유리를 이용해 공예품을 만들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열유리봉을 녹여서 액세서리를 만드는 램프워킹 체험을 비롯해 블로우 파이프(Blow pipe)를 입으로 불면서 컵, 미니화분 등을 만드는 블로잉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방문객에게 인기가.

이호영 사원 가족은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전문가의 유리공예시연을 관람했다. 1,200도 이상의 고온 유리를 입으로 불어가며 조형물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아이들의 눈길을 한 번에 사로잡았다. “어떻게 딱딱한 유리가 말랑해지면서 예쁜 모양으로 변신할 수 있어요?” 빨갈게 달아오른 유리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를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며 시연에 폭 빠져들었다.

사랑스러운
세 남매 덕분에
매일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간다는
이호영 사원 가족은
‘하하 호호’ 웃음이
끊긴 날이 없단다





시연이 끝나고 체험장에 들어선 자매는 사
뭇 진지해졌다. 어떤 모양의 목걸이 펜던트
를 아빠에게 선물할지, 어떤 모양을 아빠가
좋아할지 머리를 맞대고 한참이나 고민했다.
“세상에서 가장 반짝이는 하트를 만들자” 언
니 다인이가 두 팔을 걷어붙이며 먼저 나섰
다. 2,500도 이상의 불 온도에 행여나 아이들
이 다칠까 이호영 사원도 옆에 앉아서 다인
이와 다인이를 도왔다. 얼굴만한 큰 불꽃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차분히 유리 하트를 완성시
킨 자매는 제법 뿌듯해 보였다. “아빠, 사랑하
요.” 수줍은 듯, 아이들은 완성된 하트 목걸이
를 아빠 목에 걸어 주었다. 이윽고 이호영 사
원의 입가에도 행복한 미소가 맺혔다.

대부도 유리섬에서 남긴 추억의 한 장

서해 바닷길을 따라 조성된 야외조각공원은
대부도 유리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다.
아름다운 서해와 가까이 맞닿아 있는 산책길
에 유리로 된 큰 조형물들이 어우러져 있어
이색적인 경관을 선보인다. 이호영 사원도 아
이들과 나란히 손을 잡고 풍경 속을 걸었다.

교대 근무라는 업무 특성상 아이들과 많은
시간 보내지 못해 항상 마음이 걸린다는 이
호영 사원. 그렇기에 어렵게 떠났던 보령 무
창포의 가족 여행이 가장 특별한 추억이라
고 말한다. 물놀이에 신이 나서 물 밖으로 나
오지 않으려 했던 세 남매의 모습, 4살 다민
이가 해삼, 멍게, 낙지를 무서워하지 않고 맛
있게 먹던 모습 등 하나하나가 소중한 기억
이란다. “오늘 역시 아이들의 기분 좋은 모습
을 보니 덩달아 행복해지네요. 더 자주 아이
들과 놀아주며 시간을 보내야겠어요.” 아이
들이 재능을 찾아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그
일의 행복을 알게 해주고 싶다는 이호영 사
원은 오로지 아이들 생각뿐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유리섬에서 이호영
사원은 아이들의 예쁜 모습을 사진으로 담으
며 오늘의 추억을 남겼다. “오늘 아빠와 함께
한 유리나라 여행 어땠어?”란 아빠의 질문에
“정말 좋았어요! 나중에 엄마와 함께 또 와요
~”라고 우렁차게 대답하는 세 아이. 이런 모
습에 항상 힘이 난다는 이호영 사원은 앞으
로 아이들에게 더 멋진 추억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했다.

+ Tip

대부도 유리섬



한국의 무라노, 대부도 유리섬은 43,000
㎡의 드넓은 공간에 최고의 유리조형
작가들의 예술혼이 녹아 숨 쉬는 환상
적인 유리조형 작품과 아름다운 일몰과
서해 갯벌이 장관으로 어우러진 문화체
험 공간이다. 직접 유리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
돼 있으니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안성
맞춤인 여행지다.

문의 : 032.885.6262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흥로 254



“
오늘 역시 아이들의
기분 좋은 모습을 보니
덩달아 행복해지네요~
아이들과 자주 놀아주며
시간을 보내야겠어요!
”

사랑은 와인처럼 달콤하게 익어가고



창원공장 품질보증 창원
손강우 사원



어떤 이들은 사랑의
유효기간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이 지나면 사랑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하는 말이다.
올해로 만난 지 10여 년.
창원공장 손강우 사원과
그의 피양새 경숙 씨는
천천히 조금씩,
지금도 사랑의 크기를 키워나가고 있다.

“평생 너의 우산이 되어 줄게”

겨울비가 촉촉이 내리는 날이었다. 안개마저 열게 끼어 몽환적인 분위기가 낭만을 더했다. 철도길 너머로 빨간 우산을 쓰고 나타난 두 사람은 둘 다 키가 크고 늘씬한 모습이라 마치 모델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손강우 사원과 그의 여자친구 정경숙 씨는 올해 봄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 신부다. 10여 년 전 지인의 결혼식장에서 만나 친구 사이가 된 둘은 곧 연인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올해 결실을 맺게 되는 두 사람은 부부가 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은 10년이나 사귀면 가족같지 않느냐고 하지만, 여전히 설레고 뜨거운 사이입니다.” 예비 신랑 손강우 사원은 수줍게 불을 붙히면서도 피양새 경숙 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모처럼 시간을 내어 낙동강 레일파크에 왔건만 무심히도 내리는 비에 이곳의 명물인 레일바이크를 즐기려는 계획이 무산된 손강우 사원과 경숙 씨. “비 오는 날이 더 운치있네!” 레일바이크를

타지 못해 서운할 만도 했지만, 오랜 연인들에게서 느껴지는 여유가 넘치는 둘은 내리는 비를 즐기듯 철길 옆 산책로를 유유히 거닐었다.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두 사람. 손강우 사원의 한쪽 어깨가 젖어도 그의 시선은 경숙 씨에게 오래 머물러 있었다.

열차 안에서 만나는 향기로운 추억 그리고 여행

겨울 빙속의 산책을 뒤로하고 잠시 몸을 녹이기 위해 실제 새마을호를 활용해 만든 열차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따뜻한 차 한 잔씩을 마주하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연애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든 손강우 사원은 “다음번엔 꼭 해외여행 가자, 산토리니에 가보고 싶어”라는 경숙 씨의 말에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곧 여행을 떠날 듯 이런저런 여행 계획을 늘어 놓았다.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자주 즐긴다는 두 사람은 아쉽게도 해외여행은 한 번도 같이 한 적이 없단다. 헤어디자이너인 경숙 씨는 교대근무를, 평일에 연속된 근무로 주말 외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손강우 사원은 그때그때 시간이 날때마다 여





행을 다니고 있다고. 이러한 사정 탓에 장기간 계획이 필요한 해외여행 보다 국내여행 위주로 여행을 다니게 되었다. 덕분에 전국에 유명한 여행지는 안 가본 곳이 거의 없다고 자부했다. 손강우 사원과 경숙 씨는 “첫 해외여행을 산토리니로 가게 된다면 신혼여행이 될 것 같다”며 예비 신랑, 신부의 설렘을 마음껏 드러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달콤한 와인 한 잔

열차카페를 나와 이번엔 와인동굴로 걸음을 옮겼다. 와인이 향기로 가득한 동굴 안으로 들어서니 오히려 바깥보다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상시 기온이 10도 미만으로, 와인이 익기에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와인동굴의 와인은 감미로운 향과 맛을 자랑해 김해 낙동강 레일파크의 또 다른 즐길거리다. 입구로 들어서자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오크나무 술통이 와인의 향기와 어우러져 더욱 고풍스럽고 아늑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더 깊게 들어서니 와인바와 동굴 특유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린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일반적인 포도로 담근 와인이 아닌 김해 지역의 특산물인 산딸기로 담근 와인을 안주와 함께 시음할 수 있는 테이블은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로맨틱 했다.

+ Tip. 김해 낙동강 레일파크

레일바이크와 와인동굴이 함께하는 국내 유일의 철도테마파크로 낙동강 횡단 철교 위를 달리는 레일바이크와 김해시의 특산물인 산딸기와인을 전시·판매하는 와인동굴, 실제 새마을호 열차를 활용해 만든 열차카페, 철교 위에 올라가 석양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철교전망대 등이 조성되어 있어 온 가족이 함께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문의 : 055.333.8359 주소 : 경남 김해시 생림면 마사로 473번길 41
홈페이지 : www.ghrp.co.kr

셰플러코리아 사우님들!

연인을 감동하게 할 프로포즈 이벤트를 펼칠 기회를 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사우님들은 엽서 또는
LEESGY@schaeffler.com 메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서로에 대한 편안함은
그대로 간직한 채
기분 좋은 떨림을
이어가고 싶어요
”

이런 분위기를 놓칠 새라 손강우 사원은 “오늘은 와인 한잔 해볼까?”라며 피양새 경숙 씨에게 와인을 권했다. 평소에도 일이 끝나고 술자리를 자주 가졌던 손강우 사원과 경숙 씨는 은은한 조명 아래 서로 은근한 눈빛을 나누며 분위기를 잡는 척 하더니 이내 장난끼 가득한 표정으로 서로에게 장난을 치며 돈독한 사이를 자랑했다.

오래된 연인이지만 늘 서로에게 설렌다는 손강우 사원과 경숙 씨. “서로에 대한 편안함은 그대로 간직한 채 기분 좋은 떨림을 이어가고 싶어요.” 동갑내기 친구처럼 10여 년을 지내온 두 사람의 사랑이 결혼 후에도 더욱 진하게 익어가길 바라본다.



추억이라는 이름의 따뜻함 한 그릇,



전주공장 열처리
세그먼트
최용민 주임

남도 맛의 일번지는 전주다.
비빔밥으로 대표되는
전주의 맛은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전통상차림 뿐만 아니라
초코파이, 콩나물국밥, 가맥 등
이름난 음식과 맛집이
산재한 전주에서
이곳 토박이들이
사랑하는 음식점과
음식이 있었으니 바로
베테랑분식의 칼국수다.

“고등학생 때 처음 이곳에 왔을 땐 칼국수 한 그릇에 2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땐 그 돈 마저 없어서 깍두기만 열 그릇씩 가져다 먹곤 했지요.”



어디에나 있음직한 학교 앞 분식점의 유명세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가상의 쌍문여고 앞에는 '브라질떡볶이'집이 있었듯이 전국
의 거의 모든 학교 앞에는 그 학교 학생들의 아지트가 되었던 단골 분식집이 존재했었
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교복 차림의 청춘이 왁자지껄 모여 있을 것이다. 전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이들에게 베테랑분식은 그런 곳이었다. 이름이 거창해진 전주한옥마을이
되기 이전, 허름한 한옥 골목 옆에 위치한 성심여고 학생들을 비롯해 인근의 '상이탑학
원'을 드나들던 학생들의 허기진 배를 단돈 몇백 원에 채워주던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이곳을 찾는 전주 사람들은 음식의 맛보다 추억 때문에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하지만 한옥마을이 전주여행의 메카로 성장하면서부터 자연스레 이곳 또한 맛집 순례
자들의 성지처럼 꼭 들러야 하는 지역 맛집으로 자리 잡아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맛도
가격도 가게의 모습도 조금씩 변했지만, 전주 사람들은 기꺼이 이곳을 다시 찾는다. 전
주공장의 최용민 주임도 마찬가지다. 학창시절의 추억 그리고 조금은 특별한 인연으로
이곳을 다시 찾는다.

책장 한 칸에 놓인 사진첩을 열어보는 마음으로

“고등학생 때 처음 이곳에 왔을 땐 칼국수 한 그릇에 2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땐 그 돈 마저 없어서 깍두기만 열 그릇씩 가져다 먹곤 했지요.” 베테랑분식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예전의 추억부터 테이블 위로 펼쳐 놓는 최용민 주임은 이미 익숙한 듯
칼국수 한 그릇과 짝꿍인 만두를 주문한다. 전북 인근 지역 출신이면 으레 중, 고등학
교 시절부터 큰 도시인 전주로 학교를 다녀야 했던 그때, 봉동 출신인 그도 고등학교
에 다니며 자연스레 이곳을 처음 찾게 되었다고 한다. 냉면 그릇 가득 담아내던 칼국
수 한 그릇을 먹고 나면 그나마 다른 군것질보다 든든했기에, 학원과 당구장, 만화방
을 기웃거리던 학교 밖에서의 추억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단다. 그렇게 이곳에 발
길을 이어 온 지도 벌써 30여 년이란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남편
으로 또 두 아이의 아빠로, 소년은 청년을 지나 중년이 되었다.

“99년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어릴 때 처가가 바로 지금 베테랑분식 주차장 자리에
있었다고 해요. 그땐 좁은 골목을 마주하고 여기랑 붙어 있었다는데 지금은 주차장이
되었다며, 아직도 그때 기억을 하더라고요.” 특별할 것 없지만 남다른 또 하나의 인연
이 이곳과 이어지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이제는 입사 20년 차 직장인, 결혼 17년
차의 가정의 이름으로 일 욕심과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이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칼국수 한 그릇이 앞에 놓일 때마다 그는 다시 소년으로 돌아간다.



냉면 그릇 가득 담아내던
칼국수 한 그릇을 먹고 나면
그나마 다른 군것질보다 든든했기에,
학원과 당구장,
만화방을 기웃거리던
학교 밖에서의 추억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단다.



베테랑 분식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교동 84-10
063.285.9898



칼로 썰어서 '칼국수'

칼국수는 밀가루를 반죽해 방망이로 얇게 민 다음 칼로 가늘게 썰어서 국물에 넣고 끓여 만든다. 국물 맛을 어떤 재료로 내느냐에 따라 그 종류도, 맛도, 품격도 달라지는 재미있는 음식이다. 농촌에서는 닭으로, 해안 지방에서는 바지락으로, 산간 지역에서는 멸치로 국물을 내서 끓여 먹었다. 뜨끈한 국물음식의 대표 주자인 칼국수는 원래 여름 음식이었다. 워낙 귀한 밀인지라 수확할 때나 한 번 먹을 수 있었던 칼국수. 음력 6월 15일을 전후로 밀을 수확했던 까닭에 예전에는 한여름에나 먹을 수 있었던 별미가 칼국수였다. 칼국수에 감자와 애호박이 빠지지 않는 것도 그맘때 한창 맛이 드는 곡식이 감자와 애호박이었기 때문이다.

칼국수

밀가루 반죽을
방망이로 얇게 밀어서
칼로 가늘게 썰어
만든 국수.
또는 그것을
익힌 음식.



대통령이 반한 칼국수

칼국수가 청와대의 대표 메뉴로 부지런히 식탁에 오른 시기가 있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1993년부터 1998년까지다. 대통령이 칼국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단골 칼국수집 여주인이 청와대에 직접 들어가 칼국수 제조 비법을 전수해주고, 청와대 공식 행사에서도 칼국수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곤 했다. 물론 지금은 청와대와 아무 인연이 없음을 미리 밝히며, 제자리로 돌아간 칼국수의 결백을 보장한다.



라면에게 왕좌를 물려준 서민 음식의 터줏대감



조선시대에 국수는 양반들이나 먹을 수 있는 고급음식이었다. 일반서민들은 평소에는 국수를 먹지 못했으며,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날에 잔치국수를 먹었으며 장수의 의미로 받아들이졌다. 한국전쟁 시에 미국에서 밀가루가 대량으로 구호 식량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이를 이용해 부엌에서 간단히 칼로 밀가루를 잘라서 국수를 해 먹을 수 있는 칼국수가 전국적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 특히 '대한뉴스'의 단골 소재였던 '혼분식장려' 정책으로 인해 70년대에 라면과 더불어 분식계의 왕좌를 차지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칼국수집이 번창하게 된 것도 이 무렵부터라 할 수 있다. 이후 집에서도 쉽게 끓여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 라면 가격이 점차 저렴해지면서 칼국수는 분식계의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지키며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별 다를 것 없는 별미, 베테랑칼국수

처음 문을 연 1977년 이후 40여 년간,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푸짐한 양을 자랑하는 베테랑분식의 칼국수는 냉면 그릇에 넘칠 듯 찰랑찰랑하게 담아주는 것이 특징이다. 국물은 보기에도 걸쭉할 정도로, 부드럽게 계란을 푼 국물에 고춧가루와 들깨를 듬뿍 올려 고소하면서도 칼칼한 맛이 일품이다. 일반적인 넓적한 면이 아닌 둥글고 통통한 중간 굵기의 면이 인상적인데 반숙 국물에 면발을 비비듯 먹으면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칼국수만큼이나 유명한 깎두기는 물기를 짜낸 후 양념을 묻혀 내기 때문에 꼬들꼬들한 식감이 기가 막히다. 단 세 가지 메뉴인 칼국수, 만두, 쫄면이 이 집의 '삼합'으로 두 명 이상이라면 하나같이 이런 상차림을 주문한다. 이제는 전주를 대표하는 맛집이 된 이곳은 여전히 푸근한 분위기와 입맛을 지키려 노력 중인 듯하다.



가족이 있어 따뜻한 일상

〈임직원 자녀 그림 콘테스트〉 수상 외 작품

〈임직원 자녀 그림 콘테스트〉는 2016년 3월, 임직원 가족의 화목을 독려하기 위해 공모했습니다. 총 34명의 임직원 자녀가 참여했고, 최우수상 1명·우수상 2명·장려상 3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겨울호에는 아쉽게 수상은 놓쳤지만, 세플러 가족들의 행복한 추억이 담긴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참여해주신 임직원 가족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도 가족과 함께, 자녀와 함께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

서울사무소 전략기획 김문겸 선임매니저 자녀 '김서울'

구름 위에는 사람과 자동차 그리고 집이 있고,
구름 밑에는 귀여운 동물, 예쁜 꽃들이 있는
따뜻한 숲 속 세상을 꿈꿉니다.
우리가족들과 함께 구름 위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미래 크리스마스

안산공장 설비보전 안산 유갑수 과장 자녀 '유혜원'

초등학교 1학년 때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그린 그림이에요.
엄마가 일찍 자는 사람만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오빠랑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했어요!
선물을 가득 안고 오실 산타할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렸지요~



새로운 해가 떠오른다

창원공장 선삭세그먼트 이세욱 사원 자녀 '이아진'

2016년 새해 첫날 풍경이에요!
우리가족은 해돋이를 보러 갔었는데,
날씨는 추웠지만 소원도 빌고 맛있는 떡국도 먹으며
재미있게 놀다왔습니다.



내 동생 톰이

서울사무소 전략기획
이종우 차장 자녀 '이성빈'

귀여운 고양이 '톰'이
우리 집에 온지 일주년이
된 것을 기념해 그려 보았어요~
고양이는 그리 좋아하지
않았지만 일 년 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지 이제는 톰이 없는
우리 집은 상상할 수 없어요.



내가 바라는 미래의 축구선수

안산공장 설비보전 안산 유갑수 과장 자녀 '유상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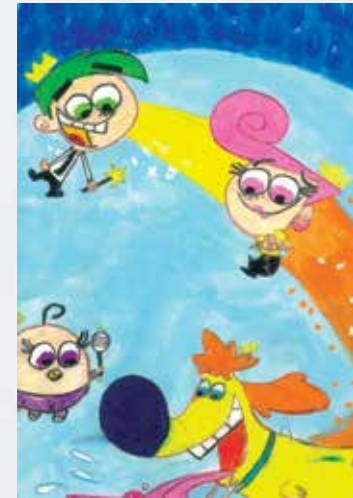
열 살 때 월드컵을 보고 난 후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매일 친구들과 축구를 하며 놀았죠.
화려한 드리블과 슈팅을 잘하는 그 누구보다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나의 공룡사랑

전주공장 공정기술 전주 이영님 부장 자녀 '윤지환'

어릴 때부터 만나고 싶던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보러
가족과 함께 일본 여행을 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제가 찾던 공룡이 없고
선물가게만 많더라고요. 실망이 가득한 여행이었지만
저의 공룡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티미의 못말리는 수호천사

창원공장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이성천 사원 자녀 '이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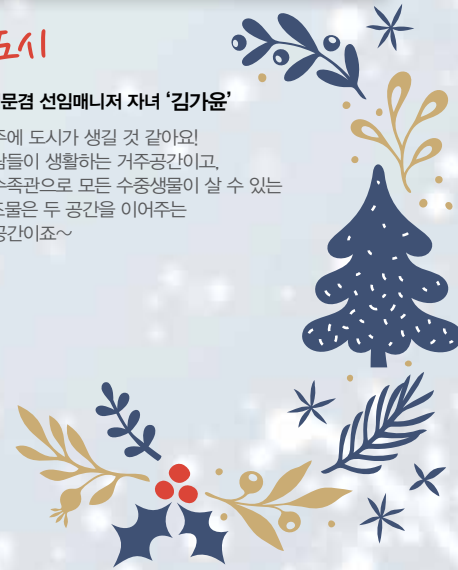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는 티미의 못말리는 수호천사입니다.
저도 만화 속 티미처럼 수호천사가 있어서
여러 가지 모험을 해보고 싶어요.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미래의 우주도시

서울사무소 전략기획 김문겸 선임매니저 자녀 '김가운'

미래엔 환경 악화로 우주에 도시가 생길 것 같아요!
왼쪽 거대한 도시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주공간이고,
오른쪽 공간은 거대한 수족관으로 모든 수중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가운데 구조물은 두 공간을 이어주는
통로 중간에 있는 휴식공간이죠~





바람에 흔들리는 아득한 여정

– 칠레 토레스 델 파이네 (Torres del Paine)

파타고니아 여행의 최적기는 여름, 곧 우리의 겨울인 11~3월이다.
가장 무더운 계절이라고는 하지만
사방천지에서는 찬바람이 휘몰아친다.
대륙의 끝에 자리한 까닭이다. 남극도 멀지 않다.
이맘때가 되면 세계 각국의 트레커들은 파타고니아로 몰려든다.
세계 10대 트레킹 코스 중 하나라는
토레스 델 파이네의 진면목을 체험하기 위해서다.

Torres del

시작하는 자와 끝낸 자 사이

찬바람을 헤치며 찾아 든 숙소에서 처음으로 내 눈에 쏟아져 들어온 것은 고지를 밟고 내려온 이들이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였다. 늦은 밤이었건만 그들의 표정은 대낮처럼 밝았고, 목소리는 나팔처럼 우렁찼다. 언제나 그랬다. 안나푸르나 트레킹의 거점 도시 포카라에서도, 로라이마 트레킹의 베이스캠프 산타 엘레나에서도 고지를 밟고 내려온 이들의 희열에 찬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짐을 부려 놓고 그들 사이에 앉았지만 그들의 언어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 감정 속에 담긴 파고를 나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더 높고 험했던 이전의 트레킹 경험도 쓸모가 없었다. 그건 거기에서나 중요한 일이니까. 다른 건 하나도 아쉽지 않았지만, 산등성이처럼 고양된 그 표정들만큼은 탐이 났다.



토레스 델 파이네와 그 이웃들

토레스 델 파이네는 'W 트레킹'이라고도 불린다. 산의 하단부 루트를 따라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혹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며 토레스 전망대, 브리타니코 전망대, 그레이 빙하를 오르내리는 여정이 알파벳 'W'의 모양을 그린다 해 그런 이름이 붙었다. 일대를 크게 도는 10여 일 안팎의 라운드 트레킹도 각광받지만 훈련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3박 4일 간의 'W 트레킹'만으로도 충분하다. 야영 장비와 취사 도구, 식량과 개인 물품을 이고 진 채 하염없이 걸어야 하는 여정이건만 그 수고로움을 달래 주고도 남을 훌륭한 비경들이 길목에 가득하다. 인근에는 모레노 빙하를 앞 세운 엘 칼라파테, 영봉 피츠로이의 관문 엘 찰텐, 남쪽의 끝이라는 우수아이아가 파타고니아라는 이름 아래에 모여있다. 여행자들 사이에서 파타고니아가 귀하게 회자되는 이유다.

존재는 바람에 흔들리고

먼저 다녀온 이들이 '바람', '바람' 했건만 그토록 바람이 세찰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누군가는 바람 때문에 걷기가 어려웠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텐트가 바람에 휩쓸려 벼랑 아래로 날아가 버렸다고 했다. 정말로 그랬다. 저 대지 끝에서부터 내달려 온 바람이 해일처럼 덮쳐들기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육체는 중심을 잃었다. 더러 영혼도 휘청거렸다. 고독감과 해방감 사이에서 시계추처럼 자주 흔들렸다. 나는 잘살고 있는가. 이 드넓은 세계에서 나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성하게 훑날리는 상념들, 온몸을 짓누르는 생필품의 무게. 그 지난한 여정을 뚫고 나가기 위해 다리에 힘을 더 주어야 했다. 그럴 때마다 고지를 밟고 내려온 이들의 표정이 왜 그리도 환했는지 점점 더 이해가 되는 것이었다.



장난감에 쉽게 질려버리는 아이를 위한 해결방법은 있을까?



‘장난감도서관’을 통해 본 공유경제 이야기

#01

호기심이 많아 장난감 욕심도 많은 우리 아이. 새로운 장난감을 사도 그 순간뿐, 일주일만 지나면 새로운 장난감을 찾곤 한다. 고작 일주일만 가지고는 장난감을 버리기에는 아깝고, 아이의 흥미를 위해 매주 새로운 장난감을 사기도 부담스럽다.

#02

아이가 커갈수록 좁아지는 아이의 방에 장난감은 처치 곤란 가라다. 이제는 가지고 놀지 않는 아이의 장난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장난감으로 여러 어린이들의 소중한 추억을 이어주는 ‘장난감도서관’을 소개한다.

부모와 아이, 모두를 위한 장난감도서관

장난감은 아이들에게 유일한 정신적 친구가 되지만 부모님들에게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다. 아이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사주고 싶지만 금세 커버리는 아이들 때문에 구매가 망설여진다. 또 어릴 적 아이의 추억이 고스란히 묻은 장난감을 선불리 버리진 못하고, 지금은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을 보관하기엔 자리만 차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다. 이들의 고민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에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장난감도서관은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장난감을 기부하고 대여할 수 있는 장소로

다양한 장난감으로 놀이를 개발하고 놀이문화를 나누고자 스웨덴에서 시작 제도다. 1982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관한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 대여 프로그램을 비롯해 특수아동 교육 및 심리치료, 장난감 만들기 지도 등 아이들의 장난감과 놀이문화를 전파하고자 힘썼고, 현재는 전국 곳곳에 장난감도서관을 마련해 더 많은 아이가 다양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게 하고 있다.

장난감을 기부하고, 대여하고, 공유하다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은 창원시민 및 재직자를 대상



장난감도서관은 단순히 장난감을 공유하는 공간이 아닌 영유아 가족과 교사들이 서로의 놀이문화를 전하고, 아동발달과 교육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했다.

장난감도서관 이용방법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녹색장난감도서관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진해점)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회관 창원관
이용시간	녹색장난감 도서관 평일 10:00~19:30 토요일 10:00~15:30 *매주 월요일, 일요일 휴무 자유놀이실 금요일 10:30~16:30 토요일 11:00~15:00	화요일~토요일 9:00~18:00 *장난감 대여 및 반납시간 10:00~17:30 *매주 월요일, 일요일 휴무	화요일~토요일 9:00~18:00 *장난감 대여 및 반납시간 10:00~17:30 *매주 월요일, 일요일 휴무
이용금액	연회비 10,000원	가입비 10,000원 연회비 10,000원	가입비 10,000원 연회비 10,000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지하 42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내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편백로 39(동신동 2-2)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 여성회관 창원관
문의	02,753,0222	055,541,1912	055,287,5242
홈페이지	seultoy.or.kr	cwtl.or.kr	cwtl.or.kr



으로 누구나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서회원이거나 만 12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둔 가입자는 장난감 구매가의 1%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을 지급하면 바로 대여할 수 있다. 1인 2점의 장난감과 5점의 도서를 일주일간 3회 연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다. 또한, 장난감을 기부받아 공유하는 장난감도서관은 수리와 소독 담당자가 따로 있을 만큼 청결과 안전에 큰 신경을 쓰고 있다. 반납받은 장난감은 소독처리와 비닐포장을 통해 보

관되고, 매번 철저한 검사와 함께 보수 및 수리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키즈뱅크 시스템은 안전과 질병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까지 고려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놀이문화를 즐겨요!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의 대여뿐만 아니라 도서대출과 부모-자녀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 녹색장난감도서관은 가족과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자유놀이실을 열었다. 별도의 신청 없이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일정 시간 내에 이용이 가능한 자유놀이실에서는 층간소음의 걱정 없이 아이와 교감하며 놀 수 있다. 또한 창원의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에서는 자녀양육에 관한 부모교육과 아이와 함께하는 문화공연을 제공해 부모와 아이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돕는다. 장난감도서관이 단순히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부모와 아이가 어울려 놀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하도록 하는 것은 행복함을 공유하고 싶기 때문이다. 아이와 함께하기 위해 고민하기보다 장난감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행복과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장난감도서관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도로 위의 범죄자를 만듭니다

더욱 강화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당시는 괜찮을지 몰라도 같은 도로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가 된다.

'아차'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문제적 운전행위들.

특히 술 약속이 많은 연말연시에 더욱 강화된 음주운전과 난폭·보복운전 도로교통법을 소개한다.

사례

1

한 해를 마무리하며 부서 회식을 가진 A 사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귀가하는데 택시를 기다리던 찰나,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B 과장이 데려다 주겠다고 동승을 요구한다. 취기는 없어 보이지만 술을 마신 B 과장. 택시가 잡히지 않는 A 사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해결



합석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범죄자입니다. 알코올 한 방울이라도 체내에 흡수되었다면 음주입니다. 이를 말리지 않고 함께 탑승한 동승자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취기가 없다고 판단이 들어도 운전대를 잡지 않거나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례

2

여자 친구와 교외 드라이브를 즐기던 C 씨. 깜빡이 없이 차선 변경으로 갑자기 들어온 차량에 접촉사고가 날 뻔했다. 그 후로도 속도를 갑자기 줄이는 등 진로방해 때문에 여러 차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위험한 운전을 계속하고 있다. 자신이 아니더라도 분명 사고가 날 것 같은 문제의 차량.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화가 날수록 참아라'는 말이 있죠. 화가 난다고 뒤쫓아 가지 마시고 우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정차한 다음, 112로 즉시 신고합니다. 이후 증거가 될 만한 블랙박스 또는 스마트 폰 영상 등의 자료를 확보해 경찰서 또는 사이버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 ✓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운전 판단, 0.1% 이상 만취상태 인정
- ✓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로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위험운전차사상죄를 적용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속수사
- ✓ 동승자가 있을 때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처벌 대상임(음주 사실을 알면서 차 열쇠를 제공한 경우, 음주운전을 권유한 경우, 말리지 않는 경우)
- ✓ 음주운전을 예상했으면서 술을 판매한 업주도 음주운전 방조범에 포함
- ✓ 음주 측정 불응 시, 혈중 알코올 농도 상관없이 면허 취소 또는 형사입건

● 난폭·보복운전 처벌기준

- ✓ 난폭운전의 행위·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 및 유턴이나 후진 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등 9개 위반 항목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행하는 경우
- ✓ 보복운전의 행위·추월 후 급제동 및 급감속,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뒤쫓아 고의로 충돌, 욕설 및 협박, 상해를 입히는 행위(단 회의 행위로도 처벌 가능)
- ✓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보복운전은 형법(특수폭행, 손괴, 협박, 상해)에 의해 처리되는 범죄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음주 측정 불응 시, 혈중 알코올 농도 상관없이 면허 취소 또는 형사입건

To Communicate



새해에 힘차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올해는 고객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46 • 긴급상황 119

강추위에 급증하는 겨울철 질환에 대처하는 자세

47 • 생활 속 사소한 꿀팁

알뜰살뜰 따뜻한 겨울나기

48 • 새로운 시선

11명의 따끈따끈한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50 • 따뜻한 시선

광이부리마을 봉사/지적장애인과 함께하는 성탄절 봉사

54 • Schaeffler FOCUS

57 • Schaeffler NEWS

61 • Schaeffler Hotline

싸우자, 겨울철 악마들아!

강추위에 급증하는 겨울철 질환에 대처하는 자세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철에는 예상치 못한 질환이 갑자기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특히나 활동성이 적어져 면역력이 약해지는 계절이기에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신경 써야 합니다. 몰아치는 강추위에 급증하는 질환, 제대로 알고 미리 예방합시다.



올겨울, 반갑지 않은 불청객 'A형 독감'

A형 독감은 일반 감기와 달리 갑작스러운 고열과 복통,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심할 경우 폐렴과 같은 염증성 질환으로까지 악화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건강한 성인의 백신 독감 예방 효과는 약 70~90% 달한다니 미리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만일 감기에 걸렸다면, 기침할 때 반드시 옷소매나 휴지로 코와 입을 가리세요. 독감은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기도 하지만 감염자의 체액이 닿아도 전염될 수 있으니 외출 시 마스크는 꼭 착용하세요. 평소에 비타민 D가 포함된 음식 섭취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저체온증'

추운 날씨에 음주, 저혈당, 뇌출혈, 골절 등으로 인해 실내외에 방치되면 종종 저체온증이 발생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떨림에 의해서 체온을 올릴 수 있지만, 체온이 섭씨 32도 이하로 내려가면 떨림 현상이 사라지고 생명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만약 저체온증 환자를 발견한다면 체온을 상승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젖은 옷은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담요 등으로 몸 전체를 덮어줍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입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아야 하고, 반응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영유아 또는 소아, 노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동상'

동상은 특히 어린 아이나 노인에게 더 잘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가족들이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우선 추운 겨울날 외출 시에는 귀마개, 마스크, 장갑 등의 방한용품 모두 착용하고, 눈에 의해 젖은 의류 용품은 바로 갈아입히는 게 좋아요. 동상을 입었다면 해당 부위를 섭씨 40~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30분 정도 담가서 따뜻하게 해줘요. 직접 열원에 가까이하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동상 부위를 눈이나 얼음 또는 손으로 문질러 마찰열을 이용해 해동하는 것은 조직 손상을 심화시키므로 피해야 합니다.



추위야, 물러서거라! 알뜰살뜰 따뜻한 겨울나기

설비보전 안산 김상종 사원

1 실내온도, 최대 20도로 유지하기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18~20도가 적절하고 조금 춥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아토피 피부염 등 피부 질환, 호흡기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서늘한 온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 시키려면 내복이나 수면 잠옷, 수면 양말 등을 겹쳐 입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내복을 입는 것만으로 체온을 3도 상승시킬 수 있어 감기를 비롯한 여러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전기 사용과 난방 사용 알고 절약하기

겨울철 전기 사용은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 제품을 사용 하지만 전기는 누진제 구간이 있어 그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지출을 더하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지난 12월, 확정된 누진제는 그동안 변화한 소비 패턴과 가구 분포를 반영해 기존 100kWh 단위로 나뉜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kWh 이하인 1구간의 경우 기본요금은 가구당 910원이며 전력량요금은 kWh당 93.3원입니다. 201~400kWh인 2구간은 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 요금 kWh당 187.9원이며, 3구간(400kWh 초과)은 기본요금 7,300원, 전력량 요금 kWh당 280.6원입니다.

맹렬한 한파가 이어지는 요즘, 겨울을 포근하게 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을까? 설비보전 안산 김상종 사원이 알려주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자신만의 비법을 눈여겨보자.



전기 사용 절약법



전기 장판, 온수 매트 등 최대 6시간까지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전기 난로, 온풍기는 공기가 순환하면 바로 끄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난방 사용 절약법



신축 아파트는 단열 시공이 잘되어 외출만 틀어놓고 온도만 지정해 주면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단열 시공이 안 되는 가정은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므로 필요시에만 보일러를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단, 사용 안 하는 방은 보일러실 배관의 밸브를 잠그면 난방비를 절약 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창문에 관한 용품 설치하기



실내 온도 상승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벽과 창문으로 들어오는 찬 공기의 유입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창문 틈새에는 문풍지, 창문에는 에어 캡, 벽 전체에는 두꺼운 커튼을 달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는 대부분 차단할 수 있으며 커튼은 바닥까지 내려오도록 길게 설치해야 보온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세플러코리아를 따뜻하게 데울 11명의 따끈따끈한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세플러코리아의 따뜻한 미래를 책임질 11명의 신입사원이 입사했다.
이들이 말하는 ‘나는 000한 세플러인이 되겠다’는 굳센 포부와 다짐을 들어본다.

서울



김상원 부장 _ 컴플라이언스
따뜻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세플러코리아 여러분들,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따뜻한 세플러인이 되고 싶습니다.



황민수 과장 _ 클러치 시스템
BU 프로젝트매니저먼트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안되면 되게 하려라’는 좌우명을
성실히 이행하고, 회사의 발전과
매출 신장에 기여하여
세플러코리아와 함께
성장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권수현 사원 _ 일반구매
글로벌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세플러의
일원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이현중 사원 _ 구매
믿을 수 있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업무를 성실히 배워 빠르게 적응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모든 업무를
능숙하게 이행하는 믿을 수 있는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창원



박기복 대리 _ 설비보전 창원
끊임없이 발전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궁정의 힘’을 믿습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임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세플러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방민석 대리 _ 툴센터
누구나 탐내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누구에게나 먼저 웃으며 다가가서 말을
건넬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발전을
통해 모든 면에서 앞서는 사람이 되어,
어디에서든 먼저 찾는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안산



한규봉 차장 _ 엔진 콤포넌트
BU 엔지니어링
꼭 필요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처음 신입사원의 마음가짐으로
열정과 기분이 충실한 조직원이
되어 앞으로 세플러코리아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주



원창연 사원 _ 공정기술 전주
한결같은 세플러인이 되겠다!
세플러코리아에 입사한 지금까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HO! HO! HO!



정현석 차장 _ 정보시스템 창원
사랑받고 인정받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선배들에게 사랑받고, 후배·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세플러인이 되고 싶습니다.
멋진 회사, 좋은 회사에 어울리는
만능 일꾼이 되겠습니다.



박경호 대리 _ 전용기개발
늘 노력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스마트 시대를 맞이해서 늘 다양한
시스템 장비를 개발하고, 노력하는
세플러코리아 전용기개발팀의
쓸모있는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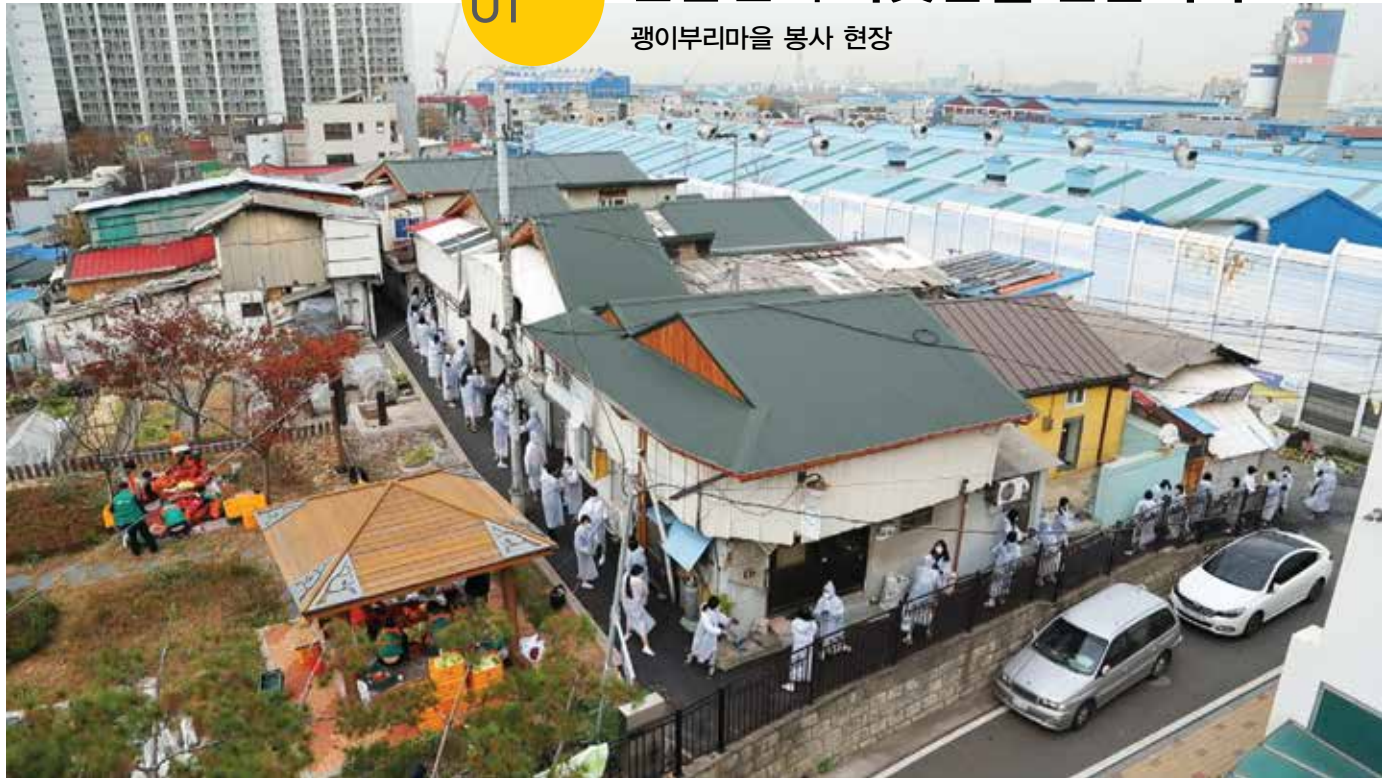


임태영 대리 _ 엔진 콤포넌트 BU 품질
대들보 같은 세플러인이 되겠다!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동료들과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01 따뜻한 시선

연말연시 따뜻함을 전합니다

팽이부리마을 봉사 현장



지난 11월 21일,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한파에도 불구하고 세플러코리아 서울사무소 직원들과 안산공장 직원들은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인천 팽이부리마을을 찾았다. 작은 부품이 모여 엔진을 움직이듯 따뜻한 손길이 모여 미래를 바꾸는 큰 힘이 되던 순간을 따라가 보자.

미래를 위한 따뜻한 움직임

6·25 전쟁 직후부터 넓고 허름한 판잣집이 모여 형성된 국내 대표적인 쪽방촌인 팽이부리마을. 쪽방 거주자들은 마을에 있는 공동 화장실 4곳을 이용하고 있으며, 화재 위험과 각종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바로 이곳에 아빠 윤민 씨, 엄마 은주 씨 그리고 딸 희주가 살고 있다. 최근 윤민 씨 가족에게 선물이 찾아왔다. 희주의 동생이 생긴 것이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기쁜 일이지만, 어른 둘이 누우면 가득 차는 방에 한 식구가 더 늘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서는 윤민 씨는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다짐하고, 주류 배달 일에 아르바이트로 야식 배달까지 쉴 틈 없이 일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KBS 프로그램 ‘동행’을 통해 소개 됐고, 이 소식을 접한 세플러코리아 임직원들은 평소 후원 관계를 맺고 있던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희주네가 사는 팽이부리마을 전체를 돕기로 통 큰 결정을 내렸다. 겨우내 주민들을 따뜻하게 해줄 연탄과 먹거리를 해결해 줄 김장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세플러코리아는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희주네가 사는

추운 겨울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봉사

좁고 꼬불꼬불한 골목 사이로 연탄을 배달하는 일은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플러코리아 직원들이 다년간 축적한 연탄 배달 봉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마을 지형에 최적화된 동선과 안정적인 자세로 무난하게 릴레이를 진행할 수 있었다. 연탄 배달과 동시에 마을 정자에서는 김장이 이뤄졌다. 남직원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 기우임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남자 직원들은 자기 집 마당에서 김장하듯 익숙하게 해냈다.

이후 연탄 배달 마무리 작업과 희주네 이삿짐 정리가 이뤄졌다. 이삿짐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을 쪽방의 비좁은 골목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남다른 기골을 자랑하는 물류 네트워크 관리의 안치훈 부장은 낮은 지붕 덕에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이삿짐을 날랐다. 이삿짐을 실은 용달을 따라 희주네 새 보금자리로 이동한

세플러코리아 봉사팀. 반짝반짝한 새 가구가 제자리를 찾고, 희주네의 소소한 이삿짐들까지 모두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왔다. 쪽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깨끗한 새 보금자리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는 희주를 보면서 세플러코리아 봉사자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미소가 띄워져 있었다. 희주네 가족을 통해서 가난이 곧 불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세플러코리아 봉사팀. 비록 넉넉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희주네 가족이 새로운 러브 하우스에서 오늘 보다 내일 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집으로 돌아오는 세플러코리아 봉사단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팽이부리마을을 돕기로 결정했다. 겨우내 주민들을 따뜻하게 해줄 연탄과 먹거리를 해결해 줄 김장을 지원했다.

02 따뜻한 시선

‘함께’라서 더욱 특별한 성탄절

지적장애인과 함께하는 성탄절 파티 현장



설렘과 나눔이 가득한 성모보호작업장

지난 12월 17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성모보호작업장으로 세플러코리아 대학생 봉사단 EVERGREEN이 모였다. 성모보호작업장은 성인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이 직업적응훈련 및 직무기능향상훈련을 통해 시설 내 직업 생활을 유지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서 고용으로 연계해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다. 세플러코리아는 대학생 봉사단이 발족된 2013년부터 매년 12월이면 이곳에서 성탄절 파티를 열어 지적 장애인들의 심리안정과 재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성모보호작업장에 모인 봉사단은 먼저, 준비해온 손난로와 핸드크림을 꺼내 조심조심 포장하기 시작했다. 서둘지만 선물을 받고 기뻐할 친구들 생각에 가워질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다했다. “겨울이라 거칠어지고, 공공 언 손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손난로와 핸드크림이 멋진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며 봉사단은 선물을 나눠 줄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다. 또한 “이 봉사가 장애를 가진 친구들뿐만 아니라 봉사를 하는 저희에게도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세플러코리아 대학생 봉사단 EVERGREEN이 성탄절을 맞아 일일산타클로스로 나섰다. 지적장애인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함께 트리를 꾸미며 풍성한 성탄절을 보낸 그 따뜻했던 순간을 찾아가 보자.



장애인 친구들의 이름을 한명씩 호명해
카드에 적힌 소원을 함께 읽어보며,
곱게 포장한 선물을 나눠주었다



트리에 우리의 소원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선물 포장을 마친 봉사단은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소원카드를 작성했다. 봉사단은 장애인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등 여러 질문을 하며 장애인 친구들과 차츰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함께 하얀 카드에 뽀뽀뽀하지만 진심을 담은 소원을 써내려갔고, 카드를 트리에 달며 소원을 빌었다.

이후 지적장애인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시간도 가졌다. 산타 복장을 입고 등장한 봉사단을 보며 장애인 친구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라며 소리쳤고, 분장이 신기한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한참을 바라보았다. 봉사단은 이내 장애인 친구들의 이름을 한명씩 호명해 카드에 적힌 소원을 함께 읽어보며, 곱게 포장한 선물을 나눠주었다. 장애인 친구들은 아이로 돌아간 듯 좋아했고, 이들의 해맑은 표정을 본 봉사단은 입가의 미소가 번졌다. 봉사단은 “화려한 선물이 아닌 소소한 선물에도 행복해하는 장애인분들에게 오히려 감사한 하루였다”며 벅찬 마음을 드러냈다. 이날 활동을 끝으로, 대학생 봉사단 서울지역의 2016년 활동이 모두 끝이 났다. 참가자 모두 “뜻깊은 봉사활동으로 EVERGREEN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1년 동안의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는 소감을 전했다.



+ mini interview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 3학년
정연석

장애인분들이 저를 진짜 산타처럼 대해주셔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들의 순수하고 진심 어린 소원을 들을 때마다 진짜 산타가 되어 소원을 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 학업에 쫓겨 다양한 활동과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세플러코리아를 통해 많은 경험과 생각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 동안 고생하신 이성규 대리님과 EVERGREEN 4기 친구들 정말 고마웠습니다. Merry christmas!



창원공장 노사 임직원 산행



입동을 지난 11월 19일 금요일, 창원공장 지원부서 임직원 모두가 창원시와 함안군 칠원면에 걸쳐 있는 해발 639미터의 천주산에 올랐다. 천주산은 '하늘을 받치고 있다'는 뜻을 가진 산으로 천주산에 자리한 달천 계곡은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 받는 곳이며 진달래 군락지가 있어 4월에는 진달래 축제가 열리는데 매년 약 1만여 명이 천주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해 천주산을 찾고 있다. 격년으로 임직원 체육대회와 번갈아가며 진

행되는 창원공장 '노사 한마음 산행'은 지원부서 이외에도 각 사업부별 일정에 맞추어 전원이 참석하는 행사이다. 지원 부서가 오른 천주산 이외에 불베어링 MU, 테이퍼 베어링 MU, 베어링부품 MU, 연구소 인원들은 각각 비음산, 정병산, 대암산, 팔용산에 함께 올랐다.

오전 9시경, 집결지인 천주산 달천 계곡에 모인 지원부서 임직원들은 환경안전팀의 주관으로 함께 스트레칭을 하고 천주산 등산

을 시작했다. 약 3km의 등산코스를 한 시간 남짓 올라 천주산 정상인 용지봉에 도착한 임직원들은 다가오는 2017년이 건강하고 힘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함께 고사도 지냈다.

고사를 지내고 하산한 임직원들은 달천계곡에 모여 함께 점심을 먹고 A, B, C 층 세팀으로 나누어 다 함께 화합할 수 있는 OX 퀴즈, 제기차기, 단체 줄넘기 등의 게임도 함께 즐겼다.



힘찬 2017년이 되길 기원하며 고사를 지내는 임직원들



단체 줄넘기로 화합을 다지는 오늘



다 함께 단합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제1회 베어링인의 날 행사



이병찬 대표이사



2016년 12월 1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회 베어링인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베어링인의 날은 베어링 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베어링산업 발전에 기여가 큰 산업인을 선정·포상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며 베어링 산업인 간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자리이다.

베어링공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세플러코리아 이병찬 대표이사의 개회사와 함께 시작된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측의 축사와 함께 유공자 포상도 진행되었다.

유공자 포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2명(코페코 박병섭 대표, 삼익정공 조총래 상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상 1명(세플러코리아 이대용 상무), 베어링공업협회 협회장상 1명(봉성비에스 조부성 차장)으로 총 4명이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소속의 약 50개 업체가 참석하였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이훈 의원도 함께 자리해 참석자들과 향후 베어링 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들을 주고받았다.

세플러그룹 CEO 화상 타운 홀 미팅



2016년 12월 1일, 그룹의 새로운 전략인 Mobility for Tomorrow(미래를 위한 움직임)를 설명하는 자리로서 마련된 클라우드 로젠펠트(세플러 그룹 CEO)의 타운 홀 미팅이 진행되었다. 향후 그룹의 전략 정책에 대해 발표한 이번 미팅은 기존 아시아퍼시픽 방문 간에 진행된 타운 홀 미팅과는 달리 전 세계 사업장 순방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미팅이다.

클라우드 로젠펠트는 유럽 지역의 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그룹 전략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나머지 해외 사업장은 독일과 직접 연결하여 화상 타운 홀 미팅으로 진행했다.

이번 화상 타운 홀 미팅에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싱가포르, 호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가 참여했으며 각 사업장별로 시간을 할당해 진행하였다.

한국과의 미팅은 가장 마지막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사무소를 포함하여 창원, 안산, 전주, 연구소 사무직 임직원들은 각 사업장에 준비된 장소에 모여 1시간가량 진행된 클라우드 로젠펠트 회장의 프레젠테이션을 함께 경청했다. 프레젠테이션에 이어 향후 그룹의 전략에 대한 질문과 함께 임직원들의 자유로운 질의응답도 긴 시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서 . 울 . 사 . 무 . 소

제6회 멘토링 워크숍

- 11월 15일부터 2회에 걸쳐 전주 연수원에서 제6회 멘토링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15일~16일에는 창원 지역 사업장의 멘토·멘티 커플이 참석하였고 17일~18일에는 서울, 안산, 전주 사업장의 멘토·멘티 커플이 참석하였다. 참가자를 중심으로 멘토·멘티를 선정하고 1박 2일간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멘토·멘티 커플은 내년 11월까지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대학생 봉사단 EVERGREEN 해단식

- 12월 21일, 1년간 활동했던 각 사업장에서 활동했던 대학생봉사단 EVERGREEN 4기 활동의 끝을 알리는 해단식이 진행되었다. 서울, 창원 및 전주 사업장 일정에 맞추어 진행된 해단식에서는 한 해의 소감을 함께 나누고 봉사단원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내년에 발족하는 5기는 더욱더 다양하고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서울사무소 종무식

- 12월 30일, 서울사무소의 종무식은 매년 영업부서 측 사무공간에 모여 진행되던 기존 행사를 없애고 매니저 이상의 직급을 대상으로 대표이사와 간단하게 간담회를 가지고 부서별 종무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새롭게 진행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함께 2016년을 마무리 하면서 1년간 진행된 각 부서의 업무 사항들을 공유했다.

세플러 아시아퍼시픽 구매 사업부 컨퍼런스

- 1월 10일~1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호텔에서 아시아퍼시픽 구매 사업부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다. 아시아퍼시픽 구매 사업부 인원 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퍼시픽 구매 사업부를 총괄하고 있는 Micah Shepard의 발표와 함께 2017년 계획에 대한 생산, 물류, R&D 분야의 책임자 및 국가별 구매 사업부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2017년 목표 달성과 효과적인 업무 진행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워크숍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2017년 시무식



- 1월 2일, 서울사무소 임직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시무식이 진행되었다. 이병찬 대표이사의 신년사에서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기술 및 사업역량의 확보, 품질 향상을 위한 관념의 내제화를 당부했다. 신년사에 이어 올해는 부서별로 임직원들의 새해 포부와 소망을 들어보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창 . 원 . 공 . 장

창원공장 4/4분기 협력업체 간담회 실시

- 창원공장 환경안전 부서에서 주관하는 4/4분기 협력업체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분기 단위로 실시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교육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염병 종류와 예방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되었다.

FCA Outstanding Quality Award 수상

- 10월 18일, 주요 고객사인 피아트-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Fiat Chrysler Automobiles)에서 매년 자사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우수하게 달성한 업체에게 수상하는 FCA Outstanding Quality Award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을 통해 창원공장의 우수한 품질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창 . 원 . 공 . 장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현장조사

● 1월 4일부터 10일까지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에 대한 현장 조사가 담당기관인 직업환경의학센터의 방문 조사 형태로 창원공장 내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확인 하고 예방 활동과 함께 보전적 시행을 진행 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보건 · 안전 통합 워크숍



● 12월 12일~13일, 창원공장에서 6차 한국지역 에너지 및 환경 보건 · 안전 통합 워크숍이 실시되었다. 최근 강화된 내 · 외부 요구사항 과 법규를 만족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협의가 이루어졌고 창원공 장에 이어 새롭게 에너지 경영시스템(ISO50001)인증을 받아야 하는 안 산과 전주공장 준비 사항을 함께 점검했다.

전 . 주 . 공 . 장

국가유공자자녀 장학금 전달



● 11월 25일, 전주공장은 밝은세상기금을 통해 모범국가유공자 자녀에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장학금 총 500만 원은 국가유공자 자 녀 중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재학생 10명에게 전달되었다. 전주공장은 2004년부터 밝은세상기금을 통해 모범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전 . 주 . 공 . 장

임직원 정기 봉사활동



● 12월 17일, 전주공장 임직원 가족이 함께 전주 덕진구 반월동 일대 독거노인 가정 3가구에 총 9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전주공장 음 악동호회는 전북 임마누엘 요양원을 방문하여 위문공연을 실시하였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민요부터 가요까지 다양한 공연을 통해 즐거움을 선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안 . 산 . 공 . 장

2016년 노사 간부 워크숍



● 12월 8일, 안산공장 노사 간부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016년 활동 내용을 함께 정리하고, 2017년도 현안과 계획 을 발표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워크숍에 참가한 노사 간부들간에 질 의 · 응답도 오갔다.

안산공장 노동조합 정기총회



● 12월 30일, 안산공장 노동조합의 정기총회가 진행되었다. 안 산공장 노동조합은 올해로 22년을 맞이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대의 원 소개와 2016년 노동조합 현황 및 결산보고가 진행되었고 이어서 모 범 조합원들에게 표창장을 시상하였다.

Schaeffler Hotline

서울사무소

2016. 9

정보시스템
김소영 | 27일
친조모상

2016. 10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영업
이명진 | 5일
부친 회갑

Sales Chassis &
Accessory Drive BU
KRAMER, ROBERT | 17일
본인 결혼

AAM 마케팅
박선영 | 22일
본인 결혼

벨트&체인 드라이브
시스템 BU 영업
윤진호 | 27일
부친 회갑

전략기획
김수아 | 29일
본인 결혼

정보시스템
이동기 | 29일
본인 결혼

HR Development
엄상현 | 29일
모친 회갑

2016. 11

급여 및 HR 서비스
이선희 | 3일
친조모상

사업관리 안산공장
정웅진 | 3일
친조모상

안성물류
이재무 | 16일
장모 회갑

안성물류
원동현 | 19일
본인 결혼

안성물류
김준호 | 21일
장모 회갑

안성물류
이재무 | 23일
모친 회갑

안성물류
이지연 | 26일
본인 결혼

2016. 12

HR Development
엄상현 | 4일
본인 결혼

중부지사 직남영업
정우진 | 10일
부친 회갑

협력사 개발
임호준 | 17일
본인 결혼

안산공장

2016. 9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최동균 | 30일
부친상

2016. 10

엔진부품 세그먼트
윤양희 | 29일
본인 결혼

2016. 11

차공구서비스 안산
장대연 | 5일
모친 회갑

차공구서비스 안산
장대연 | 8일
부친상

차공구서비스 안산
최상윤 | 19일
본인 결혼

엔진부품 세그먼트
장철호 | 20일
본인 결혼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이태일 | 20일
본인 결혼

엔진부품 세그먼트
이현기 | 26일
본인 결혼

엔진부품 세그먼트
임기영 | 27일
장모 회갑

2016. 12

엔진 콤포넌트 BU 엔지니어링
이정기 | 10일
본인 결혼

연구소

2016. 10

제품기술팀
장수권 | 27일
부친 회갑

2016. 11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엔지니어링
김승준 | 23일
부친 회갑

2016. 12

사시&악세서리 드라이브
BU 엔지니어링
이상현 | 10일
본인 결혼

제품기술팀
서민우 | 14일
부친 회갑

전용기개발팀
박종수 | 17일
장모 회갑

제품기술팀
서상수 | 27일
부친 회갑

전주공장

2016. 10

품질보증 전주
이현기 | 26일
장모상

2016. 11

열처리 세그먼트
양선규 | 7일
본인 결혼

합베어링 세그먼트
김상진 | 14일
부친상

볼베어링 세그먼트
최재선 | 14일
본인결혼

열처리 세그먼트
배영식 | 22일
자녀출산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박재경 | 25일
장인상

2016. 12

합베어링 세그먼트
이대윤 | 5일
자녀출산

볼베어링 세그먼트
김태완 | 7일
모친상

창원공장

2016. 10

선삭 세그먼트
이준형 | 16일
자녀결혼

품질보증 창원
조인제 | 16일
자녀결혼

단조 세그먼트
한영준 | 17일
장인상

툴센터
방민석 | 29일
부친회갑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이병수 | 30일
자녀결혼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안병희 | 30일
본인결혼

2016. 11

HV 테이퍼베어링세그먼트
문준영 | 1일
모친상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배도철 | 4일
부친상

중형볼베어링세그먼트
이화권 | 10일
모친상

생산계획 베어링부품 MU
문성우 | 15일
모친회갑

품질보증 창원
조용배 | 16일
모친상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이형상 | 25일
장인회갑

소형볼베어링 세그먼트
황성호 | 26일
장인상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황은철 | 26일
모친상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백승호 | 28일
장인상

2016. 12

품질보증 창원
송영선 | 6일
장모회갑

테이퍼롤러세그먼트
이근석 | 7일
모친상

공정기술 창원 생산기술
배동혁 | 10일
부친회갑

소형볼베어링 세그먼트
김남영 | 10일
장모상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이길만 | 11일
장모상

설비보전 볼베어링MU
양근환 | 11일
본인결혼

설비보전 테이퍼베어링MU
임창대 | 12일
부친상

공정기술 창원 생산기술
이기종 | 13일
모친회갑

공정기술 창원 생산기술
원창호 | 24일
본인결혼

2017. 1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김도현 | 7일
본인결혼